

청정한 계율, 사회복지, 도제양성으로 교화활성화

총지종 제9대 종령 효강 대종사 추대법회 원만회향

총지종은 조계종 종회의장 지하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효암정사 등 교계 대덕 스님들과 승지자,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7월 20일 서울 총지사에서 제9대 종령 효강 대종사 추대법회를 봉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총지종의 법맥을 전수하는 법통전수와 삼보를 존중하고 종단의 사법과 교법을 관찰함에 있어 불퇴전의 용맹정진을 다짐하는 취임선서와 유가삼밀, 우승 통리원장의 봉행사, 종령예하 법어, 중앙종의회 의장 의강 종사의 추대사, 조계종 종회의장 지하스님이 대독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축사, 문화관광부 한진수 실장이 대독한 정동체 문화관광부 장관의 축사, 반야심경, 회향가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승 통리원장은 봉행사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종단의 최고 어른이신 종령이 부재한 관계로 종무행정에 많은 차질이 있었던 차, 이제 효강 대종사께서 승단의 만장일치로 종령에 추대되시어 종단을 영도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이제 종단의 최고 어른이신 종령으로서 종단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시리라 기대된다.”고 말하였다.

사설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길

총지총은 지난 7월 20일 총지총 제9대 종령 효강 대종사 추대법 회를 종단의 스승님과 교도, 교계의 대덕스님들과 내외구빈들을 모시고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효강 종령예하는 “정정한 계율과 도제양성을 통해 종단의 종풍을 바로잡고 구시대적인 사상과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물결에 따라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야 한다. 물이 오래 고이면 썩듯이 종교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회방향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며, 교화의 일선에서 교화하는 승직자들은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을 추구하는 안일함을 버리고 청정한 계율을 지키고, 각자 교회활성화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종령 예하의 사자후는 앞으로 종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2의 창종을 다짐하고, 종단의 일대변화를 통해 침체된 교회를 활성화할 때 만이 종단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와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현재 종단의 상황을 살펴보면 초창기에 금강같이 타오르던 교회의 열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당시에 교회되었던 교도들과 자손들만이 진언행자로서 수행하고 있을 뿐 심지어 사원의 수와 교도의 수는 담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종단의 상황을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효강 종령 예하는 승직자들의 수준향상과 일대변화를 통해 새로운 종풍을 전파시킬 때만이 종단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고 평가하여 이러한 교지를 내리셨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종단의 발전은 혼자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종단의 모든 분들이 최고 어르신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교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그마한 관심이나 편견, 아집, 소아적인 생각을 버리고, 대아적인 자세로 종단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고 발전을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는 해외에서 유입된 다국적인 종교단체를 포함해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자신들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포교방안과 방편을 내놓으며 일반인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앞으로 총지총도 이들과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는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일대변화를 모색하여 새로운 도약의 일로를 걸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와 나’라는 분별심을 버리고, 시기와 질투보다는 일상동체로 화합과 협동을,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는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교화의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

청소년포교의 활성화로 내일의 일꾼 양성

총지총이 청소년 수련회를 개최하여 시행한 지도 벌써 1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처음에는 전국 사원에서 청년회와 학생회가 결성되어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수련회를 개최하였다. 그 당시에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련회 행사를 개최하는 것만으로 편족하고 보람을 느꼈으며, 행사 후 학생들과 청년들은 아쉬움으로 더욱 큰 분발을 다짐하곤 했다.

그러나 현재는 통리원에서 주최하여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청소년 포교를 위해서는 매년 수련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 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초창기에 성황을 이루었던 청년회, 학생회, 자성학교의 부활을 기할 때만이 청소년 포교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종단내적으로 청소년의 포교는 ‘밀폐진 독에 물불기’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시기는 몇십 년이 걸리지만 이들이 종단의 내일을 이끌고 갈 일꾼이라는 사상이 앞서야 할 것이다. 종단의 미래는 훌륭한 일꾼들이 종단내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였을 때 밝아질 수 있다. 청소년들이 현재에는 포교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불교의 인연법에서처럼 이들에게 좋은 인을 지을 때 좋은 과를 받듯이 언젠가는 총지총을 이끌어갈 일꾼으로 성장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어린이, 학생회, 청년회의 포교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한국불교종단협 정기총회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대안마련



◆ 우승통리원장을 비롯하여 불교계 각 대표들이 한국불교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불교 종단협은 우승 총지총 통리원장을 비롯하여 조계종 총무 원장 법장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암정사 등 25개 종단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4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감사결과보고와 결산을 심의 결정하고, 협의회의 활동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협의회의 투명한 회계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총회의 자료는

불교 종단협의회는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형성된 단체로 불교의 위상강화와 세계화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본인은 회장으로서 협의회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차후 협의회의 활동강화를 위해 노력을 것을 다짐하며, 협의회의

투명한 회계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총회의 자료는

회의 수일전에 각 이사들에게 송부하여 충분한 자료검토를 한 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관행을 타파하고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종단협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부회장인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경제적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일불교교류협의회를 종단협과 통합하여 운영해야 하며, 지금까지 회장 종단의 대표단들이 소극적인 자세로 활동을 하였지만 앞으로는 정기적인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종단협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날 회의는 일부 종단의 대표자가 바뀜으로 인해 새로운 이사 임원 선출의 건과 지난해 결산의 감사결과보고, 결산보고, 장기회비 미납종단에 대한 조치, 한·중·일 불교교류대회 개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편 한국불교 종단협은 이날 정기총회를 계기로 새로운 조직개편과 업무의 질향상, 대외홍보사업, 한국불교 세계화의 방안을 위한 프로그램을 모색할 예정이다.

추억의 여름 학생 수련회

경주, 보성에서 다채로운 행사



제 14회 여름 학생 수련회

◆ 여름학생수련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경주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총지총은 제14회 여름학생 수련회를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경북 경주, 전남 보성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수련회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사원에서 1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다.

이번 수련회는 총지총 사원인 경주의 국립사원에서 개회식과 폐회식을 가지 총지총의 사원구조, 수행법과 의식법을 실수하였고, 경주의 불국사, 박물관, 천미총을 답사하여 천년의 고도 경주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확인하였으며, 마지막 날 밤에는 총지총 한마당으로 전문 레크레이션 강사의 주최로 진행된 장기

관성사 황성너 10,000
기로원 대관 10,000
기로원 대자행 10,000
기로원 법장화 10,000
기로원 상지화 10,000
단음사 김경창 20,000
단향사 공철봉 2,000
덕화사 김상열 10,000
덕화사 하순옥 5,000
만보사 박선희 10,000
만보사 박정심 10,000

밀인사 배정임 10,000
밀인사 조덕남 10,000
밀인사 김덕배 10,000
밀인사 무명씨 10,000
밀인사 배태임 5,000
밀인사 신대식 5,000
밀인사 신동의 5,000
밀인사 신동희 5,000

밀인사 이연수 20,000
밀인사 이혜성 5,000
밀인사 이화수 5,000
밀인사 정정희 5,000
밀인사 백월사 5,000
밀인사 차노병 10,000
밀인사 이홍석 20,000
밀인사 우담바라 100,000
수인사 김봉기 10,000
수인사 김진 10,000

수인사 이순자 10,000
수인사 송희준 10,000
수인사 이순우 5,000
수인사 박미선 5,000
수인사 박병성 5,000
수인사 이숙례 5,000
수인사 정경자 5,000
수인사 정연수 5,000
수인사 주영채 5,000
수인사 김부자 10,000
수인사 박보경 20,000
수인사 이형란 10,000
수인사 우바이 60,000
수인사 구정희 20,000
수인사 김점남 10,000
수인사 김정연 20,000
수인사 남숙자 20,000

정각사 박운용 3,000
정각사 박훈희 10,000
정각사 설성희 5,000
정각사 신영자 5,000
정각사 박병성 5,000
정각사 이수임 5,000
정각사 이우임 5,000
정각사 정희연 10,000
정각사 조현필 5,000
정각사 최분순 10,000
정각사 황영숙 10,000
정각사 박우관 20,000
정각사 장수복 10,000
정각사 정광행 10,000
정각사 지심행 10,000

총지사 최순전 10,000
총지사 고춘배 5,000
총지사 김완식 5,000
총지사 자성신 10,000
총지사 정길호 10,000
총지사 조성기 10,000
총지사 조숙자 10,000
총지사 길현숙 20,000
총지사 강성태 10,000
총지사 김정님 3,000
총지사 무명씨 5,000
총지사 무명씨 10,000
총지사 무명씨 10,000
총지사 박남섭 20,000
총지사 안화자 10,000
총지사 이계순 5,000
총지사 홍경자 10,000

발휘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수련회에서는 28일부터 30일 까지 70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여 전남 보성의 녹차밭에 녹차의 추출과정, 다도법, 다원을 방문하여 차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보성 유품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였다. 마지막 날에는 순천 송광사를 답사하고 불교의 시원양식과 수행법, 의식법을 견학하였다.

우승 통리원장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수련회란 자신의 마음을 닦고 몸을 바르게 단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신을 올바르게 갖도록 단련함으로써 평소의 무분별한 생활을 반성하고, 올바른 마음가짐과 생활자세를 익히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나 집에 있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시키면 마지 못해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자신 스스로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도록 해야만 신나는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항상 세상을 밝게 보는 마음’을 길러내는 시간을 가지고, 이번 수련회를 잘 미루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면 게으르고 나쁜 버릇은 버리고 모든 일에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합시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총지총은 이번 여름 학생 수련회를 계기로 청소년 포교를 위해 사원별로 자성학교와 청소년 법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신규 종무원 인사발령

- | | |
|--|--------------|
| | 김미숙
단향사근무 |
| | 인원
제석사근무 |
| | 구나영
통리원근무 |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총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지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총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총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2004년 6월 28일부터 2004년 7월 26일까지

개천사	곽동규	20,000	만보사	배정임	10,000	수인사	이순자	10,000	정각사	박운용	3,000	총지사	최순전	10,000
개천사	권영남	10,000	만보사	조덕남	10,000	실보사	송희준	10,000	정각사	박훈희	10,000	혜정사	고춘배	5,000
개천사	김옥희	10,000	밀인사	김덕배	10,000	실보사	이순우	5,000	정각사	설성희	5,000	혜정사	김완식	5,000
개천사	이희관	10,000	밀인사	무명씨	10,000	실지사	박미선	5,000	정각사	신영자	5,000	혜정사	자성신	10,000
관성사	김홍조	10,000	밀인사	배태임	5,000	실지사	박병성	5,000	정각사	신옥필	10,000	혜정사	정길호	10,000
관성사	박현숙	10,000	밀인사	신대식	5,000	실지사	이숙례	5,000	정각사	윤선자	10,000	혜정사	조성기	10,000
관성사	이혜원	5,000	밀인사	신동의	5,000	실지사	정경자	5,000	정각사	이란이	10,000	혜정사	조숙자	10,000
관성사	황성녀	10,000	밀인사	신동희	5,000	실지사	정연수	5,000	정각사	이수임	5,000	흥국사	길현숙	20,000
기로원	대관	10,000	밀인사	이연수	20,000	실지사	주영채	5,000	정각사	이우임	5,000	강성태		
기로원</td														

지상설법

진리(眞理)에 대한 욕망(慾望)

사람의 욕망(慾望)은 한(限)이 없다.

"욕망이란 결코 채워지지도 만족되지도 않는다."는 서양(西洋)의 속담(俗談)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욕망이란 끝이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욕망만을 고집하며 살아간다면 화약(火藥)을 지고 불길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이며 절제(切除) 없는 욕망이란 결국은 파국(破局)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욕망만을 고집하듯 절제만 고집하는 경우도 수행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삼가야할 일입니다. 욕망에 함정(陷阱)이 있듯이 절제에도 함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행자의 실천(實行)에 있어서는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智慧)의 육바라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앞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육바라밀의 수행을 통해 욕망과 절제의 집착에 사로잡힌 편협한 인식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전에 "믿음만 있고 아는 것이 없으면 미신(迷信)으로 흐르기 쉽고, 알기만 하고 믿음이 없으면 상(相)만이 생긴다."라는 구절을 보면 믿음과 아는 것이 겹(兼)해 모든 행(行)의 근본(根本)이 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삶의 지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진리(眞理)와 현실(現實)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알고 수행하는 것이 깨달음을 가는 길이요, 지혜(智慧)인 것입니다.

다음은 지월록(指月錄)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노파(老婆)의 소암(燒庵)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



기로소승 법정 대정사

그러나 팔의 이야기를 들은 노파는 벼락처럼 고함을 치며 "내가 사람을 잘못보고 20년이나 헛고생을 했구나. 흑산귀굴(黑山鬼窟)에 들어앉은 악마를 받들다가 나도 그놈과 함께 지옥(地獄)에 떨어지겠다."며 곧바로 암자로 달려가 스님을 훼내고 암자를 불질러버렸다.

꼭 산속에 들어가 앉아야만 도를 얻고 계율에 매여 살아야만 깨치고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속에서 도를 찾고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속이 꽉 막힌 사람이 잘 살아보겠다고 불교를 믿기 시작하여 살생(殺生)의 계율을 지켜야 한다며 부부간의 잠자리를 하지 않기 위해 별실을 사용했다가 얼마안가서 결국 이혼하게 되어 가정의 화목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스님이 조그만 암자를 맡아 교화를 시작하여 그 마을 사람들은 암자에 계시는 스님의 계율에 감동하고 그 스님을 존경하고 받들었습니다.

하루는 스님이 마을에 내려가 독실한 신도집에 들렀습니다. 그 신도는 존경하는 스님이 오셨고 마침 점심때 스님을 대접하기 위해 정성껏 수제비국을 끓여 대접하였습니다.

수제비국속에는 마늘, 멸치, 파가 들어 있었는데 스님은 이것들을 일일이 건져내고 갖은 인상을 쓰며 수제비국을 먹은 척 맛을 했습니다.

그 신도는 스님의 모습을 보며 아무리 계율이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의 정을 무시한 행동에 마음이 들지 않고 그 스님에게 배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고 회의심을 가지고 다시는 그 암자에 가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스님의 행동이 옳았을까?

그 스님은 계율에만 빠져 동사섭(同事攝)의 진리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이웃 가까이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헤아리고, 아픔을 알고,

이해하는 자만이 진정한 수행자...

**육바라밀의 수행을 통해 욕망과 절제의 집착에 사로잡힌 편협한 인식을 버려야...
상대방의 사정을 헤아리고, 아픔을 알고,
이해하는 자만이 진정한 수행자...**

니다.

"불심(佛心)이 강한 한 노파(老婆)가 조그마한 암자를 지어 젊은 스님 한 분을 모시고 20년을 하루같이 음식(飲食)과 의복(衣服)등 수발을 하며 스님의 수행을 도왔다. 어느날 노파는 스님의 공부가 얼마나 진전(進展)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을 해 보았다.

노파는 젊은 팔에게 스님을 유혹해 보라고 시켰다.

'오늘은 암자에 가서 스님을 한번 꺼내어 보아라.' 팔은 어머니 말씀대로 스님의 품속에 안겨서 교태를 부렸다.

'스님 저는 스님에게 안기니 무한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스님의 감정은 어떠하신지요?' 스님은 무표정하고 점잖게 대답했다.

'고목나무가 엄동설한에 찬 바위를 기대고 선 것과 같고 불씨 가진 재가 따스한 기운이 전혀 없는 것 같소'

젊은 팔은 스님의 도력(道力)을 찬탄하며 어머니에게 스님이 말한 것을 그대로 전했다.

하는 육바라밀을 진실하게 수행하고 실천하는 자만이 진정한 수행자일 것입니다. 겉으로만 진리니 자비니 인욕이니 말하면서 본인은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스님은 한 보살이 찾아와 "남편의 고집이 여간 아니어서 집에 오면 잔소리만하고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하면 그 버릇을 고치겠습니까?"

하고 하소연하였다. 스님은 "고집은 남편의 고집을 고치려는 보살의 고집이 더 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한 번만 참으면 남편의 고집이 수그러질 것입니다. 우선 보살님의 고집부터 버려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어느 집에 가정불공을 갔을 때다. 불공을 마치고 점심공양을 하는데 같이 갔던 한 보살이 음식을 실컷 먹고 배가 아프다면 "내배가 아픈 걸 보니 이 집은 절량희사를 안하는 모양이다."라고 말하여 할 말을 잊은 적이 있다.

가시를 잡으면 그 손이 상처 입는 것처럼 잘못된 수행은 당사자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끈다.

수행이란 깨달음을 중득하기 위한 실천인데 깨달음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며,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수행의 원리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것은 본래 그러한 성품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다 알다시피 모든 종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행이 가능한 것이고 성불이 가능한 것이다. 다른 말로 일체 모든 법은 진여법이 그대로 드러남이요,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현현이므로 다만 그것을 자각하기만 하면 곧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달마사나 부처님도 수행을 통해 가능하였고 모든 깨달은 분들이 수행하지 않고 중득한 이가 없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은 부처와 다르지 않지만 현재는 본성이 가리워져 있으므로 수행을 통해 본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 범부를 부처로 만드는 법은 무엇인가?

① 밖에서 안으로
우리는 흔히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나' 리거나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몸과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세상일이야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세상일 이야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는가. 먼저 그 동안 밖으로만 내달리던 모든 관심을 안으로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바깥의 대상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고, 생각하는 가운데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리고는 좋은 것은 불들려고 하고, 싫은 것은 거부하며, 그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진다. 여기에서 모든 법뇌와 집착과 무지는 시작된다. 모든 것은 이렇게 지각된 바탕 위에 감정과 생각과 논리와 판단이 따라 붙는다. 이렇게 만든 하나하나의 이미지들로 이 세계는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 그 세계는 당연히 나의 번뇌에 의해 세워진 환상이며 물거품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거다 저거다 정해놓고 쫓아가는 삶은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이 끊임없는 갈증만 증가시킬 뿐 영원한 휴식과 편안함은 주지 못한다.

외부의 어떤 것에 얹매어 불들고, 거부하고, 외면했던 삶을 안으로 돌려 불들려고 하는 마음을 놓고 거부하려는 마음을 쇄고, 외면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깨어있을 수 있다. 외부로 향하던 관심을

안으로 돌려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 등의 지어감을 알아차리고 깨어 있음으로써 이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수행의 첫 번째 원리이다.

② 있는 그대로 보기

이렇게 해서 마음이 쉬고 편안해지면 사물을 대할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우리는 매일 물을 마신다. 그러나 과연 물맛을 제대로 느끼면서 마시는가 아니면 그냥 마시는가 물을 마실 때 있는 그대로 그 맛을 느껴보라. 소리가 들리면 그것이 욕하는 소리이건, 칭찬하는 소리이건 그냥 소리 그자체로 들어

없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③ 알아차림

수행의 또 다른 원리는 알아차림이다. 현재 자신의 안과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이다. 알아차림이 길어지면 그것이 일어남과 유지됨과 사라짐을 그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진실로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들뜬 의식으로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고요속에서 여실히

을 의미한다.

일심으로 해서 안되는 일이 없다. 기도가 이루어지고 아미타불을 친견하고 화두를 타파하는 모든 것이 모두 일심이 되었느냐 아니나에 달려있다. 일심이란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하며 어떤 하나에 집중되어 다른 생각이 없음을 말한다. 즉 염불이면 염불, 진언이면 진언, 화두면 화두로 일념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과 하나가 되어 그것 자체가 되어 버릴 때 무지가 자리를 비켜나고 그것과 하나가 되어 그것 자체가 되어버릴 때 무지가 자리를 비켜나고 본성광명이 드러나는 것이다.

⑥ 계·정·혜의 통일

계정혜 삼학은 불교수행자들이 갖추어야 할 수행의 세 가지 측면이다. 먼저 계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여 수행자들이 마음에 안정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지침이다.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안정되면 선정을 통해 더욱 마음을 고요하고 맑게 한다. 그리고 고요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정진하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드러난다. 이렇게 계는 정의 바탕이 되고 정은 혜의 바탕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선적으로 끝나지 않고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혜가 생기면 어떤 것은 해야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할지 스스로 알게 된다. 또 정이 깊어지면 몸과 마음이 저절로 계를 지키게 된다. 또한 정과 혜는 통나무의 양끝과 같아서 어디

서부터 어디 까지라고 가르기도 힘들고 어느 한쪽만 취하기도 어렵다. 늘 함께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 분들도 정혜쌍수라 하였다.

모든 공덕에 항상 한 마음으로써 모든 밤일을 버리기를 마치 원수인 도적을 여의듯해야 한다. 크게 자비로운 세존이 설하신 바의 이익은 모두 이미 극진한 것이니, 너희들은 오로지 부지런히 그것을 행하라. 혹 산간이나, 혹 바이 있는 습하고 풀이 무성한 곳이나, 혹은 나무 밑에 서나, 한가하고 고요한 방일지라도 받은 바의 법을 생각하여 잊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며, 항상 스스로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 중에 알아차림을 잊지 말라고 하셨다.

④ 지금 여기

'알아차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음'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버렸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재라고 하는 것도 한 순간도 머무르는 바가 없으니 오직 지금이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모음으로써 언제나 깨어있을 수 있다.

사람의 고통 가운데 많은 부분은 인간관계 속에서 생긴다. 또한 내 마음으로 그린 여러 가지 상(相) 때문에 스스로 벽을 쌓고 나와 남을 갈라놓는다.

이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

키며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니 수

원이 끝이 없다. 이때 어떤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고 안으로

돌리며 부분적 경험으로 판단분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나와 너의 대립이 사

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조화로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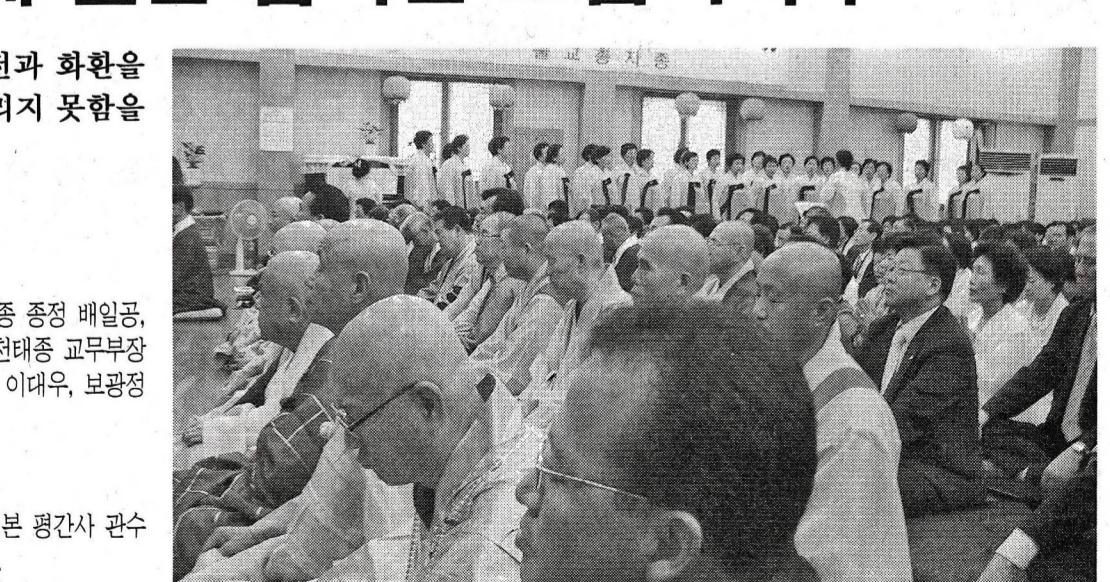
임을, 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세계 모든 것이 귀하지 않은 것이

아는 것이다. 우리는 한 순간도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런데 이 숨쉬기에 얼마나 깨어있는가. 숨쉬고 앓고 서고 걷고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밥 먹고 자고 일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몸 기는데 마음 가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 중에 알아차림을 잊지 말라고 하셨다.

⑤ 일심으로

어떤 일인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수행도 마찬가지이다. 수행의 과정을 중득하는 해법은 열심히 하는데 있다. 그것은 일심이 됐을



제9대 종령 효강 대종사 추대법회(7월 20일)

교계 대덕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중단의 제9대 종령 효강 대종사님의 추대법회에 직접 왕립하여 주시고, 또 각별한 관심과 환희심으로써 축전과 화환을 보내 주신 교계 대덕스님과 사부대중의 모든 분들께 본 중단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직접 인사를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글월로 대신 합니다.

법회 동참의 수회공덕으로 성불의 대원(大願)을 이루시기를 서원합니다.

▶ 법회 동참하여 주신 분

조계종 종회의장 방지하, 태고종 총무원장 이운산, 진각종 통리원장 효암, 관음종 총무원장 이홍파, 보문종 총무원장 법종, 총화종 총무원장 전남정, 원음종 종장 배일공, 조동종 종장 지명, 일봉선교종 종장 김무찰, 조동종 서울원장 법공, 용화종 총무원장 법달, 통도사 신허, 불교텔레비전 회장 석성우, 불교방송 이사장 김도후, 천태종 교무부장 춘광, 진각종 문사부부장 회성, 한국불교 법회종 총무원장 김광태, 불교방송사장 이성언, 문화관광부 종무실장 한진수, 현대불교사장 김광삼, 동해중학교 교감 이대우, 보광정사(불교텔레비전 사장) 이수덕, 종교신문 사장 김주호, 한일불교교류협회 사무국장 광진용

▶ 축전을 보내 주신 분

중국불교협회 회장, 한일불교교류협회 미야비야시 아끼히조 회장, 한일불교교류협회 다니겐쇼 이사장, 한일불교교류협회 후나오카 호쇼 사무총장, 일본 평간사 관수 다키하시 류렌, 국회의장 김원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신기남,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 김광삼, 대전충남불교 연합합창단단장 박승자.

▶ 화환을 보내 주신 분

대통령 노무현,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 법장, 태고종 종장 혜초,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진각종 통리원장 효암, 천태종 총무원장 운려, 한국불교종단협 사무총장 흥파, 총화종 총무원장 전남정, 보문종 총무원장 법종, 원음종 종장 일공, 조동종 종장 지명, 용화종 총무원장, 대한불교 조계종 송월주, 법상종 총무원장, 한국불교법회종 총무원장 김광태, 한국불교 조동종선립 총무원장 학봉, 대승종 총무원장 혜심, 대한불교 상원종 석불, 불교텔레비전 회장 성우, 불교방송 사장 도후, 청와대 불자회장 조윤재, 현대불교 사장 김광삼, 한일불교문화원 김경중, 불교총지종 서울경인교구, 불교총지종 충청전라교구, 불교총지종 서원경인교구, 불교총지종 부산경남교구, 불교총지종 대구경북교구, 신정희, 역삼재가 노인복지센터 관장 조영표, 총지사 정광행, 구리시 글로벌치과 안유수,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교보생명 양철미, 등해중학교 교장 강경중, 우리은행 남역삼 지점장 박철화.

총기 33년(불기 2548년) 8월 2일

불교총지종 총령추대 봉행위원장 우승 합장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17)

태장계만다라의 '관음원(觀音院)'과

주존(主尊) 성관자재보살(聖觀自在菩薩)

지난 호까지 연화부원(蓮華部院)의 존상(尊像)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호부터는 태장계만다라의 세 번째 그룹(院)인 '관음원(觀音院)'의 존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관음원의 주존(主尊)인 성관자재보살(聖觀自在菩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관음원을 달리 연화부원(蓮華部院)이라고도 한다. 이 관음원은 중대팔연원의 북방에 위치하고 있다. 행자가 만다라를 향하여 왼쪽에 있는 곳이다. 제1열의 중앙에 앉은 주존(主尊)이 성관자재보살이다. 이 보살을 또다른 변화관음존(變化觀音尊) 20분이 중대팔연원을 향하여 세 방향으로 둘러싸고 있고, 거기에는 16존의 사자(使者)가 뒤따르듯 자리잡고 있다.『대일경』 「구연품」에서는 이 원(院)에 7위의 본존만을 기록하고 있다. 그 7위를 동쪽(만다라의 위쪽)으로부터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명비(明妃) · 아운다라(耶輪陀羅) · 득대세(得大勢) · 비구지 · 관세자재(觀世自在) · 다라(多羅) · 백처존(白處尊) · 하야게리파(何耶揭利婆)의 순서로 나열된다.

『대일경』에 따르면, 여래가 대비삼매(大悲三昧)에 머무르며, 중생들의 온갖 선근(善根)을 성취시키는 덕을 표현한 것이 이 연화부원(蓮華部院)이다. 이 원(院)은 대비한 덕의 작용활동력에 의하여 중생은 번뇌의 짐을 때에 더럽혀지지



성관자재보살

관음원은 중생의 온갖 번뇌 의혹을 잘 살펴보고 중생을 제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이 성관자재보살을 염하면 해탈…

않고 본래 지니고 있는 정보리심(淨菩提心)을 현현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마치 진흙탕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고 청정한 꽃을 피우는 연화와도 같기 때문에 연화부원(蓮華部院)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또 이 작용활동력을 주관하는 이가 바로 관음보살이기 때문에 관음원(觀音院)이라고 한다.

여래의 대비(大悲)의 덕을 표현하는 이 원은 중대팔연원의 남방에서 여래의 지혜가 갖는 작용활동력을 나타내는 금강수원(金剛手院)과 상족하여 중대팔연원의 여래가 행하는 중생제도의 덕을 나타낸다. 여래가 지난 대비의 덕은 오지(五智) 가운데 묘관찰지(妙觀察智)에 근거한다. 여래는 이 지혜에 의하여 중생의 온갖 번뇌의 의혹을 잘 살펴보고 중생을 제도한다. 이 지혜를 주관하는 것은 중대팔연원 중에서 무량수여래이다. 따라서 연화부원은 중대팔연

정법금강(正法金剛) 또는 본정금강(本淨金剛)이며, 삼매야형은 처음 핀 연꽃 모양이다. 이를 초활연화(初唐蓮華)라고 한다.

존형(尊形)은 백유색으로 왼손에는 아직 피지 않은 붉은 연화(蓮華)를 가슴에 대고, 오른손으로 그 연화(蓮華)의 꽃잎을 벌린 모습을 하고, 백색 연꽃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무량수여래의 화불(化佛)이 있는 관(冠)을 쓰고 있다. 인상(印相)은 팔연인(八葉印)이다. 진언은 '나막 사만다 보다남 사람마다가타 바로기다 가로타마야 라 라 라 훔 자하 사바하'이며,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여래 중에서 잘 보는 자여! 자비 깊은 자여! 라 라 라 훔 자하 사바하'의 뜻이다.

<자료정리 : 법장원>

원의 무량수여래가 펼치고 있는 중생제도의 구체적 전개인 것이다. 또 연화부원의 제존(諸尊)의 활동은 궁극에는 무량수여래에 이르러서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주존(主尊)의 성관자재보살이 관(冠)에 무량수여래를 화불(化佛)로 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이다.

이 연화부원의 공통적인 종자는 진리를 의미하는 법어 satya(諦)의 접두사 sa인데,『대일경소』에서는 연화와 같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asakta(無執着)의 접두사 sa라고 해석하고 있다. 변화관음 가운데 옛날부터 가장 광범위하게 신앙되어 왔던 천수관음과 십일면관음은 나중에 살펴볼 허공장원(虛空藏院)과 소실지원(蘇悉地院)에 각기 배치된다.

성관자재보살(聖觀自在菩薩)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이 이 성관자재보살을 염하며 그 명호를 부를 때, 그 음성을 관하여서 윤회고(輪迴苦)에서 해탈된다. 관자재(觀自在)라는 명호는 온갖 존재의 실상을 관찰함에 자유자재한 지혜를 갖추어 중생을 자유자재로 구제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성관자재보살은 중생을 구제할 때, 몸을 갖가지의 모습으로 변화시킨다고 여겨왔기에 많은 변화관음들이 신앙되어 왔다. 이 성관자재보살의 지혜는『대일경』「주심품」에 설해지고 있는 '십연생구(十緣生句)'의 관찰삼매(觀察三昧)에 의해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보살의 밀호(密號)는

생활속에 밀교

수행이란 매일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

쁜 업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에 반응하여 추한 말과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의 업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 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거울을 들고 그 용도에 대하여 리흘라에게 물었습니다.

리흘라가 "그것은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거울과 같이, 그대는 어떠한 행위이든 그것이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이 거울과 같이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거울은 흥한 모습을 아름답게 비추어 줄 수 없고 아름다운 모습을 흥하게 보여 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마음에서 일

어느는 그 의도를 볼 수 있을 때, 즉 거울처럼 비추어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행위는 훨씬더 정화될 수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고 고통의 결과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은 자신의 무의식적인 행위와 습관적인 반응때문입니다.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은 늘 충동적이며 들떠 있고, 항상 '나'라는 자만과 아집에 빠져 있습니다.

가령, 상대방이 그대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에 즉각 반응하여 내가 다시 그의 단점을 말하고 나쁘게 말을 하며 용서될 수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곤궁에 몰아넣고 내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못된 마음과 내 입장만을 생각하는 옹졸함에서 벗어나 언제나 상대방의 편에 서서 그의 장점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자신의 무의식적인 행위와 습관적인 반응은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은 바로 우리의 거울입니다. 따라서 그의 불만은 바로 우리가 보낸 불만의 모습을 보여 준 것 일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아름다운 점을 이야기 한다면 그는 결코 우리에게 추한 모습을 보여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바르지 못한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우리는 거기에 다시 반응하면 안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는 바로 우리의 나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진연연

송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간수가 죄수를 관찰하듯이 자신을 관찰하는 수행은 매일 매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통하여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바로 볼 수 있을 때, 나쁜 마음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그러한 마음들로부터 자유로워 집니다. 우리가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탐진치 삼독에 빠져 악업만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알고 이해한다면 항상 마음을 관찰하고 바른 행을 잊지 않고 행하여야 하며 나쁜 마음을 항상 선한 쪽으로 돌리는 울바른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수행을 할 때 우리는 항상 마음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수행이 느슨해질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다시 마음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교의 수행입니다. 진정 수행을 지속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확고히 하여야 하며 수행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항상 마음의 균형과 안정을 찾도록 하는 바른 삶의 연습입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 완성을 포함입니다.

<법경/ 연구원/사무국장>

진언수행의 길

서원당에 모셔져 있는 본존을 개인의 가정에 모셔놓은 데 이를 가정본존(或者가정다라니)이라 한다.

가정본존을 집에 모셔놓는 이유는 서원당에 나올 수 없는 교도들이 집에서도 불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진언행자라면 당연히 가정본존을 봉안하여 진언염송을 생활화하여야 할 것이다. 가정본존을 모시고 늘 예배하는 생활은 불제자의 도리요, 진언행

자로서의 의무라 할 수 있다.

우리 총지종의 수행지표는 시시불공, 처처불공으로 즉신성불함에 있는 고로 어떤 때 어느 곳에서라도 불공을 행하고 있다. 가정본존 봉안을 희망하는 교도는 먼저 사원의 스승님께 말씀 드리고, 가정본존 일정을 함께 의논하여 진택불사와 가정본존봉안 불사를 행하도록 한다.

이사를 하게 될 때는 이사가기 전에 '가정본존이안불사'를 하고, 이사간 후에는 '가정본존봉안불사'를 올린다.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이사 가기 전의 이안불사는 간단히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이사 후에 봉안불사는 필히 하여야 한다.

불교경전의 정화(精華)! 『불교총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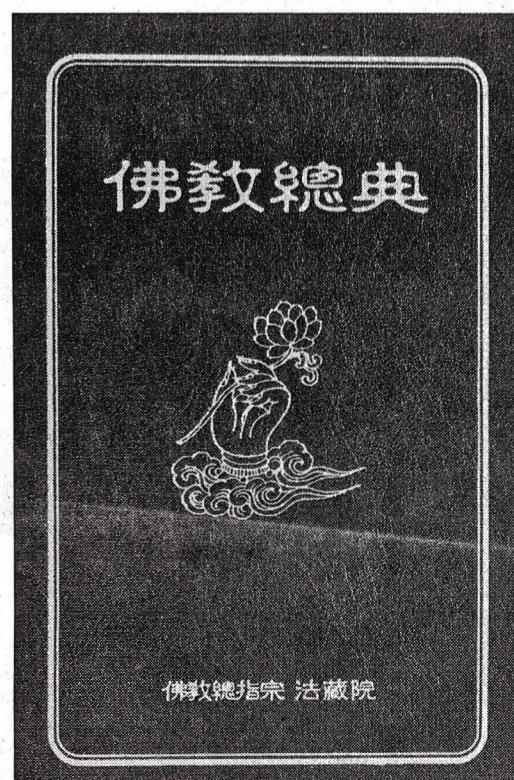
팔만대장경의 주옥같은 말씀을 이 한 권에…

팔만대장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처님 말씀을 이 한 권에 가려 봤습니다.
『불교총전』한 권으로 불교의 근본교리와 실천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교법(教法)/수도(修道)/업감연기(業感緣起)/

자기애 대한 덕의(德義)/타인에 대한 덕의(德義)/포교와 구경해탈 및 열반



국판 고급양장 금박/700페이지/정가 35,000원

도서출판 법장원 Tel :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총지논단

실천공부 (13)

본 글은 종교 원정 대성사께서 서적간행을 위해 친히 쓴 글입니다. 원정 대성사께서 창종의 뜻을 구국도생(救國度生)에 두셨던 만큼 구구절절 일체 종생제도의 대비원(大悲願)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한국밀교의 중흥을 창종 정신으로 삼았던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정통밀교종단의 교상과 사상의 체계와 정립에 전념하셨습니다.

특히, 한때 진각종단의 총인직을 맡았을 때는 모든 교리체계와 교전편찬을 순수 완성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면면은 원정 대성사의 유고(遺稿)에서 엿보게 됩니다. '심인진리' '진각' 등의 언급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총지종과 진각종의 교전을 이루고 있는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에서 대성사의 숨결을 다시 한번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구병(救病)

차라리 죽는 것만 같지 못한 문동병 같은 불쌍한 사람을 볼 때에는 반드시 죄과라고 생각하고 몸살같은 적은 것은 과로하여 왔다하며 감기 같은 것은 바람 쇠여 왔다하고 죄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큰 것은 죄과나 적은 것은 죄과나지 않는가? 중하고 경한 것만 다를지언정 크거나 적거나 원인은 다 죄로 인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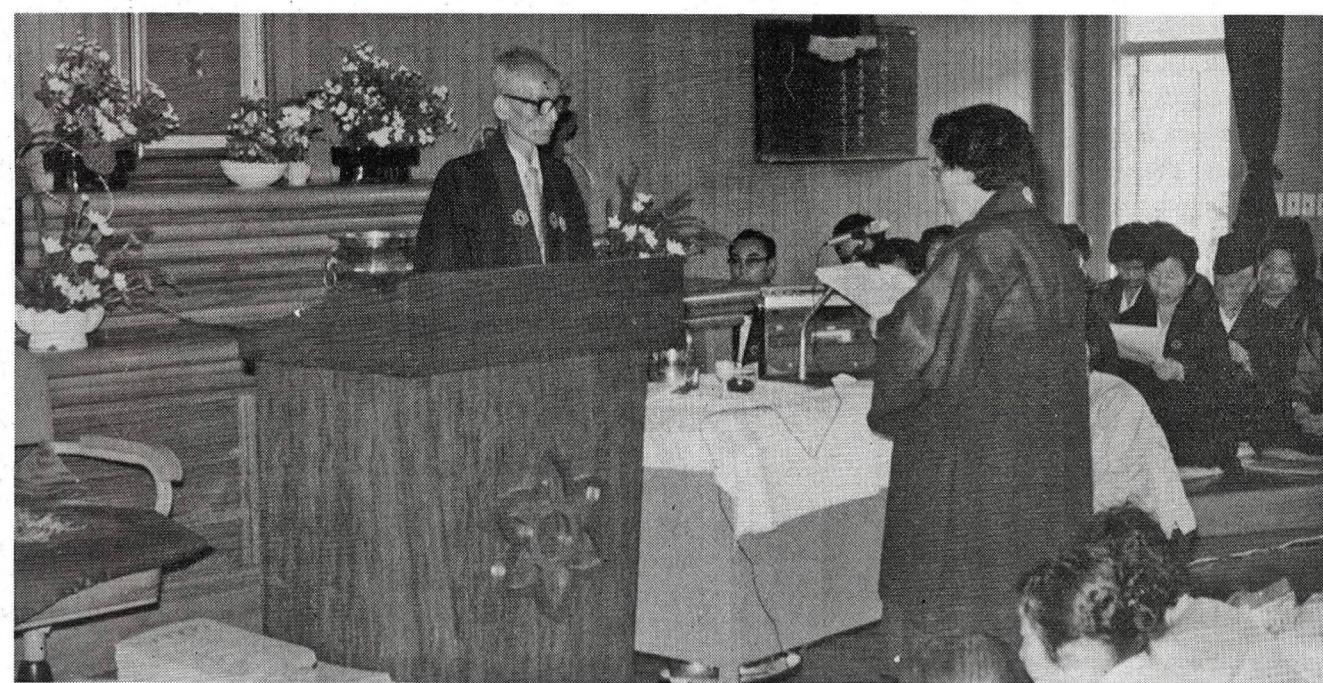
불(佛)을 배반한 오백년 동안에 민족의 각성이 어두어서 죄지어서 병들고 악 먹어서 병 낫는 것 밖에 모르니 이것이 진실로 사(邪)에 기우려진 것이 아닌가.

기일을 정해서 심공하는 중간에 새롭

병이 나거나 혹 병이 더할지라도 허물을 뉘우치고 약을 쓰지 않는 것은 심마를 물리치고 심인을 깨치는 데 한 시련이 될 것이며 또 정기 심공 중에 진리의 심공법을 세우기 위해서 약을 끓고 놋았다고 하더라도 속히 나을 병이 오래 가는 일은 진각님 법계 안에 그와 같은 진리가 없는 것이며 또 우리 신교도로서 천만번이나 실험하여 온 결과도 실패가 없었던 것이다.

사람은 몰라도 병이 다 되어서 죽을 병이 들린 사람에게 약을 써서 낫는 것도 아니요 이와 반대로 아직 병이 남아 있는 사람이 병들어서 의원을 구하여 약 쓰지 않았다고 죽는 것도 아니니 병은 의원에도 약에도 있지 않는지라.

오인이 열려서 중생을 불진대 세상 사람의 의원은 응급적 임시로 치료하는 법에 불과 하므로 근본적으로 다스리지 않고 순만치는 것이 되어서 위장병을 고쳐 놓으면 폐에 병이 나고 심장



마음으로서 낸 병은 심인진리를 깨쳐서 능히 병고를 해탈

많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위생과 의료기관이 발달되지 않는 까닭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육체병을 고치는 좋은 의원이 없다는 것 보다도 정신병을 고치는 의원인 불보살의 법약을 먹지 못하였던 까닭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의료기관 시설이 많은 도시에서는 병이 적을 것이어도 도리어 정신병과 내부병과 기타 해부학을 고치는 병이 많은 것을 보고 알 것이다.

변하는 것은 미래의 복이 주가 되고 행하는 것은 현재의 복이 주가 된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가 다 염하고 행하는 것이 서로 관련되어 있으니라. 염불인연한 공덕은 미래의 복이 되므로 시대에 맞지 않는 관을 쓰고 도포를 입더라도 나의 의법과 행사하는 그 시대

에 이르러서 복을 받게 되려니와 육행을 실천한 결과는 현재에 복이 되므로 현대의 의법과 행사로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혼재에 행복으로 살게 되나니라. 죄는 네 가지의 그릇된 것이니 곧 지수화품이 네 가지 현실에 그릇된 것이 죄가 된다.

사람 죽이고 도적질 하는 것은 다 죄인줄 생각하고 또 행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알되 봉건시대는 가고 자유시대는 왔는 데도 불구하고 봉건 조상을 부터 행하여 오던 적은 중도를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도 죄요 양을 쓰는 시대에 음을 쓰는 것도 죄요 국가 사회를 위해서 회사할 시대에 자기의 몸과 가정만 알고 절약하여 인색한 것도 죄요 물심이원을 세우는 시대에 물질문명을 열게 되는 과학 교육은 바울줄 알고 정신문화를 열게 되

고 있는 시대 주의와 행사에 서로 반대가 되고 현세 복이 어려서 오리요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 과도기에 있어서 사람과 행사가 자연 시대와 어긋남이 많은 까닭으로 의술로서 고치지 못할 온갖 병이 많은 것이다.

선한 마음에는 선심이 따르게 되나니 선심은 길문을 열어오고 악한 마음에는 악마가 따르지 되나니 악마는 병마를 불러오게 된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 좋은 균이 없으며 어느 곳에 나쁜 균이 없으리요 미는 마음에 벌써 별릴만치 감정되어 있는 사람은 운으로서나 기로서나 물로서 병균을 쉽게 받고 암식적으로 본 성품이 밝고 기와 정이 흐리지 않는 사람은 운으로서나 기로서나 물로서 병균을 쉽게 받지 아니하는 예를 들게 되면 눈바람에 찬길

을 같이 오고 이슬을 맞고 한 데 잠을 같이 자는 데도 불구하고 필정에 상해서 마음병을 내어 있는 사람에게 병마가 쉽게 침노하나니 그려므로 깨끗한 심장데는 병마가 침노하지 못하거늘 어찌 내가 살

세상사람은 다 이 이치를 모르는 까닭으로 찬 바람에 상해서 병이 낫다하고 이슬에 상해서 병난 줄만 알게 되나니 악한 세상에 미친 같이 일어나는 모든 병은 불보살보다 더 좋은 양의 뭘 자가 없느니라.

그려므로 신라 고려의 불교문화가 발달하였을 때 어떠한 의료기관이 발달되었던가 한번 생각하여 볼 때 동의도 아니요 서의도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 불보살의 광명지혜 안에 진리 법약으로서 병이 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간 있는 병은 백병통치하는 병의가 있어서 무난하게 치료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보살정토이며 극락세계이며 불교문화인 것이다.

바람에도 병이 나고 더위에도 병이 나고 습기에도 병이 나고 마른 데도 병이 나고 추위에도 병이 나니 이 것은 의물로 감상되어서 나는 병이

라 천지의 기와 음과 물과 균으로써 나는 병이니 물과 균으로써 나는 병은 물로써 고치게 되므로 곧 약으로써 능히 치료하게 되느니라.

슬픈 데도 병이 나고 성내는 데도 병이 나고 두려운 데도 병이 나고 미워하는 데도 병이 나고 욕심에서도 병이 나나니 이것은 내심으로 감상되어서 나는 병이라 사람의 심성 곧 자기마음으로서 내는 병이니 자기 마음으로서 낸 병은 자기 마음으로서 고치게 되므로 곧 심인진리를 깨쳐서 능히 병고를 해탈하게 되느니라. 그려므로 우리나라 사람의 물심(物心)으로 나는 두 병을 나누어 보면 의물로서 낸 병은 약으로써 쉽게 고치고 내심으로 나는 병은 성품이 어두어서 고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라.

〈자료제공 : 종학연구실〉

조선화 원장의 총지 동의보감

지방간

지방간의 문제는 힘과 통로로 결정됩니다.

술을 먹는 사람이나 안 먹는 사람이나 나이가 들어 초음파나 피검사를 해보면 '지방간'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술'과 '지방간'은 관련이 없을까요?

해답은 솔보다는 오히려 신진대사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몸은 먹고 마

신 것을 해결지 못하면 비축해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질의 신진대사가 원활치 못하여 간에 누적된 결과 '지방간'인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 신진대사가 점점 어려워지면 간 스스로 봉괴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를 '간경화'라 부릅니다.

문제는 지방을 분해하는 것인데, 지방

을 분해하려면 '따뜻한 기운이 순환되어야 하고, 기운이 활발하면 지방질이 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기운은 순환할 때 힘이 있어야하고, 순환을 위한 통로가

원활하여 비축되거나 저장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기운이 활발하면 지방질이 분해됩니다.

통로는 신경 혈액, 호르몬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 통로를 열고 닫는 것은 마

방질만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힘과 통로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질은 다시금 불어납니다.

그러므로 한의학적인 이치와 기운과

신진대사가 원활치 못하여 간에 누적된 결과 발생
욕심이 적고 마음이 편안하여 두려움이 없으면 해결

열려 있어야 합니다. 힘이 유지되려면 피곤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밤낮을 조절하고, 욕심을 조절하고, 음식을 조절하여 힘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지방의 신진대사도

움이 좌우합니다. 마음이 열리면 통로도 열립니다.

따라서 뜻을 한가롭게 가져 욕심이 적고 마음이 편안하여 두려움이 없으면 통로는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

통로를 해결해 주는 한약처방으로 지방간에 접근하면 지방간을 해결하는 문제는 쉬워지고, 더불어 전신의 건강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성 美 한의원 원장 (02)545-0072

여성 美 한의원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간경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증, 질염, 냉증, 대하증, 불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저(임도), 임신증독증 등...
-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 기능성성좌약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디아이트
- 남성 : 복부 디아이트

■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진료시간

평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한남대교

점원동

신사역3번출구

신한은행빌딩

3층

20M

1분거리

STARBUCKS

김남역

도산대로

일방통행

여성미한의원



풍경소리

도(道)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 선객이 노사(老師)에게 물었습니다.
“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눈앞에 있으니라.”

“그런데 왜 제게는 보이지 않습니까?”

“너에게 ‘나’가 있기 때문이다.”

“저에게 ‘나’가 있기에 보지 못한다면 스님께서는 보이십니까?”

“네가 있고 내가 있으니 더욱 보지 못한다.”

“저도 없고 스님도 없다면 볼 수 있습니까?”

“너도 없고 나도 없는데, 누가 본단 말이냐.”

- 벽암록중에서 맹랑자/수필가

세상의 모든 풀들이 약초이듯이

부처님의 주치의였던 ‘기바’가 의사수업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스승이 기바에게 망태를 던져 주면서 말했습니다.

“약초를 캐오너라.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다.”

그는 며칠이 지나서야 그것도 빈 망태인 채로 돌아왔습니다.

“약초는 캐오지 않고 어디를 갔다 왔느냐?”

“스승님, 세상에 약초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온 천지가 약초뿐인데 어떻게 다 담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기바의 말을 듣고 스승은 그를 의사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상에 약초 아닌 것이 없듯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 문윤정/수필가

처음 그것

이달의 명상

깨달음은 스스로 다가온다

조선시대 초기 연산군 때 고승 벽계 정심선사와 벽승 지엄선사가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불상을 파괴하고 승려를 환송시켜 사당터의 등을 물이꾼으로 삼는 등 연산군의 횡포가 심했던 시절 황악산의 직지사 정심선사는 속인으로 변복을 하고 산너머에 있는 물한리란 곳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를 간절히 구하고자 했던 지엄선사가 정심선사를 찾아와 배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정심선사는 3년동안 매일 일만시키고 ‘도가 무엇인지?’ 물었으나 법문 한마디를 듣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지엄선사는 정심선사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량을 떠나기 위해 정심선사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산문을 걸어나올 때 정심선사가 지엄선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지엄아, 나를 보아라. 내가 매일 밥을 지으라고 할 때 설법하였고, 차를 달여 오라고 할 때 설법하였고, 나무를 하라고 할 때 설법을 하였고, 밭을 매라고 할 때 설법을 하였는데 네가 물랐으니 오늘 법을 받아라.” 하며 불끈 쥔 손을 내밀어 보였습니다. 그때 지엄선사는 확철대오 하였습니다.

지엄선사는 한번도 법문을 듣지 못하였지만 항상

옛날 어느 나라에서는 혼기를 앞둔 딸을 교육할 때 바구니를 들려 옥수수 밭으로 들어보낸다고 합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옥수수를 따오면, 아주 마음에 드는 훌륭한 신랑감을 골라 줄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딸들은 대개 빈 바구니를 들고 밭을 걸어 나온다고 합니다.

처음에 마음에 드는 것을 골랐으나, ‘조금 더 가면 더 좋은 것이 있겠지’하고 자꾸 앞으로만 나다가 결국은 밭이랑이 끝나 빈 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멀고 긴 인생의 행로에서 내가 선택할 것이 많으나 참으로 내 것인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처음 내 것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 장옹철/시인

썩고 싶은 날

며칠만 두어도 순내가 나는, 다 먹지 못한 음식 배고픈 누군가의 먹을 만한 밥 한끼도 되지 못한다면야

차라리 썩는 게 낫다면서 뒤도 돌아보고 썩는 그 떫여함을 보면 나도 썩고 싶어진다.

썩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애써 부정하며 지금껏 버티고 있는 내가 생각할 때 스스로 판단하여 썩는 것, 용기다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한 둘의 식량도 못되면서 무르지도 썩지도 않고 향기도 없으니 썩는 것들 앞에서 넘새난다고 코를 막지 못하겠다.

이젠 먹을 것이 못 된다며 순내를 풀풀 풍기는 것들 앞에서는 내가 이제껏 무엇, 무엇을 삼켰는지 솔직하게 게워낼 만한, 그런 순내 비슷한 냄새라도 좀 났으면 좋겠다

- 나혜경/시인

원정대성사와 함께하는

VISUAL밀교 ~반야심경편 제30화~

글·그림/정수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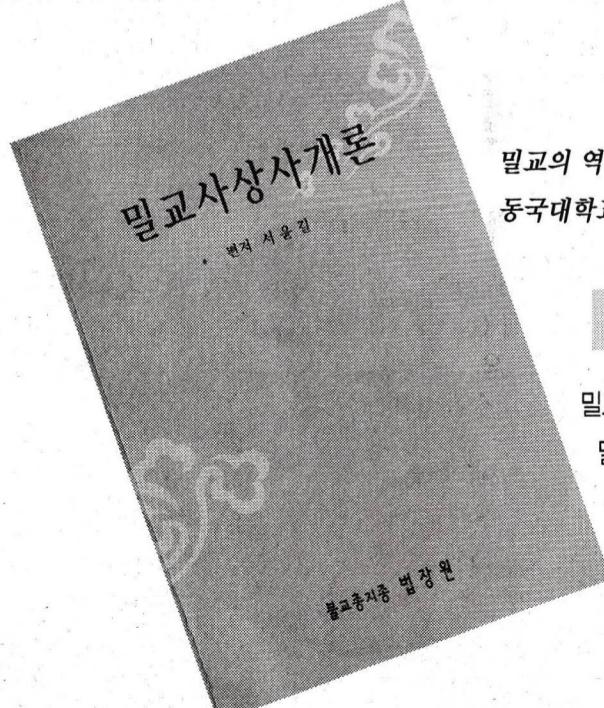
이런, 손에 금이 많군요.

헤헤... 저쪽 손까지 금반지를 다 끼울 겁니다.

끄으응...



『밀교사상사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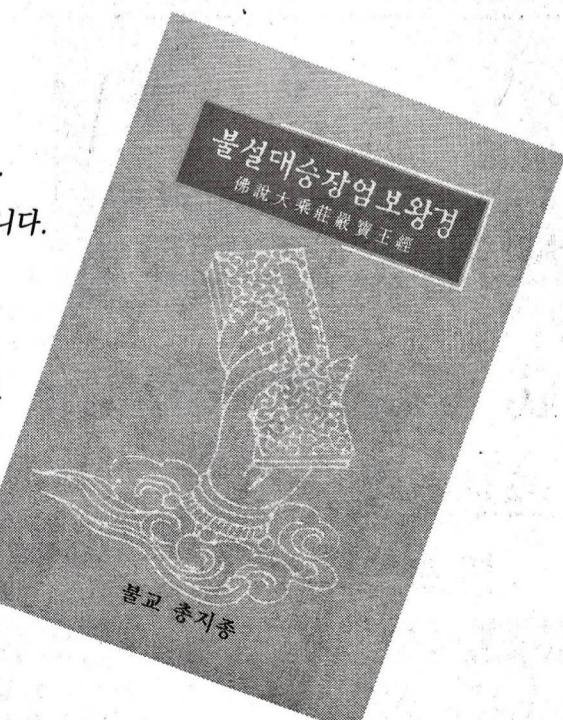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 대승장엄 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육자대명다라니《옴마니반메훔》의 유래와 공력을 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베풀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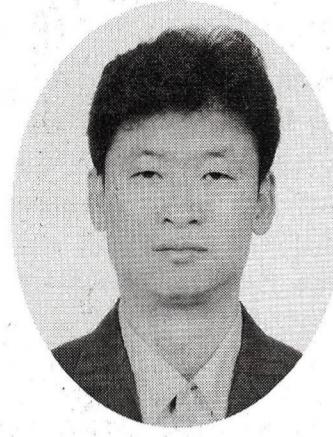
---본문 중에서 -----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도서출판 법장원

Tel:(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총지칼럼



김종인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불교 연구로
철학 석사 (1994)

스토니부룩 대학교 불교 연구로 철학

오늘날 한국 불교계에는 종파를 초월한 공통된 문제가 있습니다. 개별 종단마다, 개별 사찰마다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겠지만 그 문제들의 근원을 추적해 보면 한 곳에 이릅니다. 그것은 현대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한 구체적 이해의 부족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수많은 사상적 조류가 서로 밀착해 있고, 온갖 기이한 문화적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각자 자신들의 이념의 실현을 위해 목청을 높우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가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텔레비전은 뉴스와, 드라마와, 쇼를 통해 전태만상의 풍경을 만들어 가고 보여 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 사회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거리에는 수십 층의 새 건물이 솟아오르고, 형형색색의 기묘묘한 새로운 차들이 그 사이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웃차림새가 수시로 변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얼굴과 몸뚱이조차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이해하고 적응하기 위해 한국인들은 혼신의 노력 을 다합니다. 모두들 꼭두새벽부터 일어나서 숨 가쁘게 뛰어다닙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도 사람들은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온몸의 기력이 몽땅 소진되어서야 잠자리에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도태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숨 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맘연자실 냇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불교도들입니다. 한국 불교가 시대의 흐름에 뒤쳐져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뒤쳐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불법은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며 목탁만 두드리고 있습니다.

불법은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합니다. 그러나 시공을 초월한다는 것이 오늘 이 순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무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들 속에 뛰어 들고 해결한 후에야 초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생사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집을 나서 숲으로 간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바로 숲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진리를 구하기 위해 먼저 간 곳은 숲이 아니라 뜻 사상가들이 모여 있던 코살라 국의 수도로 갔습니다. 부처님은 그곳에서 당대의 사상 조류들

나. 이러한 생각은 깨달음을 도식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오는 순진한 사고의 결과입니다. 깨달음은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깨달음은 매순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삶의 문제를 안고 오는 사람들에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 인도에서 중국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불법과 도가사상을 배척해왔습니다. 도가 역시 불교를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스님들은 유학과 도가사상 모두를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불법은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만 유학과 도가사상은 쇠퇴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불교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인들이 새로운 철학과 사상 조류를 알리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철학과 사상은 새로운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철학과 사상을

을 안다는 것은 중생들의 새로운 고통과 염원을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은 언제 어디서나 중생을 괴롭히는 보편적인 것이지만, 그것들은

그런데 방편이 방편에 머물고, 나쁜 지식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은 결코 그것들이 처음부터 진리를 결여한 방편이거나, 나쁜 지식이 때문이 아닙니다. 방편과 지식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진리가 되기도 하고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 부처님들의 무수한 방편과 오늘날의 다양한 지식은 모두 하나님의 궁극적 진리, 부처님의 진리 속에 담겨져야 합니다. 또 역으로 하나님의 진리는 무수한 방편으로, 오늘날의 다양한 지식과 문화 속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방편과 지식 그 자체에만 머무는 것이 무명 중생의 모습이듯이, 방편과 지식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의 것으로 보는 태도 역시 진리의 본질을 모르는 태도입니다.

불교인들의 사명은 무명중생의 눈을 열어 진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이 시대, 이 사회에서의 무명중생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불교인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깊은 무명에 쌓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 한국의 불교인들은 여타의 종

깨달음은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

불교인들의 사명은 무명중생의 눈을 열게함

을 두루 배운 연후에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 숲으로 갔습니다. 물론 부처님은 당시 도시의 사상가들에게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도 또한 참입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도시에서 배운 바 없이 바로 숲으로 가셨다면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아마 아침과 망상 속에 살다간 한 지적인 방랑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만 여러 가지 사상을 섭렵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친 연후에도 역시 새로운 사상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날 불교 승려들은 깨쳤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깨지고 나면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

가를 보면 깨달음이 왜 역동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중국에 불법을 전한 스님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당시의 스님들은 결코 불법의 진리를 깨친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은 유학 경전들을 공부하고 도가의 철학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았다면 불교는 중국 땅에 전파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불교가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 역시 깨달음을 얻은 이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사상들을 공부하고 진리를 재해석해왔기 때문입니다. 불법과 유학과 도가 가운데서 가장 열려 있는 것이 불교였습니다. 유학자들은 유학만 공부하고

은 시대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생로병사를 말하는 것으로 중생의 고통을 모두 말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중생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중생들을 옥죄고 있는 독특한 방식의 삶의 질곡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 이 시대의 철학과 사상, 문화 조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중생을 인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교인들의 사명은 무명중생의 눈을 열어 진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전자가 오늘날 불교를 모르는 일 반 중생들의 태도라면, 후자는 옛 불교만 알고 오늘날의 지식을 모르는 고루한 불교인들의 태도입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익혀야 하겠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36.7%는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할 수 있다’ 4.5%는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이혼한다’고 각각 응답했다. 이혼에 대해 관용적인 입장을 보이는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높았다. 한편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8%가 ‘이혼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밝혔으며, 여성(56.5%)이 남성(33.7%)보다 이혼을 고려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에서 이혼고려 경험률이 58.9%로 나타난 반면,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은 29.4%에 그쳤다.

직장인 60% “얼굴보다 몸매우선”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이상을 택하는 기준으로 얼굴보다 몸매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기업 플레너스에 따르면 직원 350명에게 배우자 선택기준으로 얼굴과 몸매 중 무엇을 선호하는지 조사한 결과 61%가 ‘몸매가 우선’이라고 답했으며, 얼굴을 푸는 응답자는 39%에 그쳤다. 또 75%가 몸매가 괜찮다면 올 여름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을 생각이 있다고 밝혔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25%에 불과했다.

특히 이 응답자들의 종합 비만도를 조사한 결과 표준체중과 과체중이 각각 50%, 30%로 과체중은 20%에 그친데 비해 82%가 ‘지금보다 살을 빼고 싶다’고 밝혀 실제 비만여부와 상관없이 날씬해지고 싶은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몸매관리를 위해 가장 적합한 운동으로 요가 35%, 달리기 30%, 웨이트 트레이닝 17%, 수영 13% 등이, 가장 살을 빼고 싶은 부위로는 배 50%, 허벅지 20%, 얼굴 22%, 팔 4.5%, 엉덩이 3.5%, 등이 꼽혔다. 몸매관리 정보를 얻는 출처는 54%가 인터넷, 23%가 TV, 4%가 신문을 들었다.

정보ダイジェスト

부부갈등 해결 불교교리 활용

부부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불교수행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발간됐다. 조계종 포교원과 불교상담개발원은 ‘부부성장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고서’를 통해 부부갈등과 문제해결을 도와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갈등해소방법으로 사정제, 즉 고집멸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부부간의 갈등을 표면화시키는 고성제, 갈등의 원인을 찾아가는 집성제, 갈등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집성제, 바람직한 부부간 대화법을 깨닫는 도성제로 나눠 짧은 시간에 부부간 문제점을 찾아내고 극복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인성검사프로그램인 MBTI를 도입해 각자의 성격을 파악하고, 결혼민족도에 대한 조사, 바람직한 부부간 대화법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국인 자살증가율 OECD중 최고

한국인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 중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0년간 연평균 자살 증가율은 1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OECD 보건 통계자료 등을 비교 분석한 ‘OECD 보건통계자료 등을 비교 분석한 OECD 국가의 자살사망률 및 변화추이’를 4일 발표하고 한국의 자살자는 인구10만명당 18.1명으로 평가(24.3명), 필란드(20.4명), 일본(20명)에 이

어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그리스로 인구 10만명당 3.1명이었으며, 포르투갈(4.2명), 이탈리아(5.7명), 스페인(6.7명)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미국(10.1명), 독일(11.2명), 프랑스(15명), 뉴질랜드(15.2명)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자살증가율은 한국이 1%로 자살급증 국가인 멕시코(0.61%), 일본(0.44%)보다 높았다.

도시보다 시골오리 소리가 더 곱다

오리도 사투리를 쓸까? 지역마다 양양과 어휘 등이 천차만별인 인간들의 언어 습관처럼 오리들의 “꽥꽥” 울음소리에도 지역별로 다양한 양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영국의 한 대학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런던 미들섹스대의 연구진은 “런던 오리들은 귀에 거슬릴 정도로 격한 양으로 우는 반면 남서부 콘월 지역의 오리들은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울음소리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차이는 사이렌과 경적소리 등 각종 소음공해에 시달린 도시의 오리들이 격한 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한국인 자살증가율 OECD중 최고

어린이 안전사고 57%가 ‘집안서’

‘어린이 안전사고, 집밖보다 집안을 더 조심하라.’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지난해 119구조대의 어린이 안전사고 출동건수를 분석한 결과 2건 가운데 1건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등 집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사고 출동건수는 모두 4,364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안전사고 57.7%인 2,519건이 집안에서 발생, ‘부모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장소별 어린이 안전사고는 집안의 길거리(617건), 백화점등 공공장소(376건), 놀이터주변(307건), 학교 및 유치원(176건), 유원지(176건)등의 순이었다.

흡연, 인체 모든 조직에 악영향

“흡연이 백혈병, 백내장, 자궁암 등 전에는 예상되지 않았던 질병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미국 보건당국이 밝혔다. 리처드 카모너 미국 공중위생국국장은 이날 흡연과 건강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급성골수백혈병, 백내장, 자궁경부암, 신장암, 체장암, 위암, 복대동맥류, 치주염, 폐렴을 새로이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추가했다.

카모너 국장은 또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발기부전 등도 흡연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며 유방암은 유전적 특이성을 가진 일부 여성의 경우만 흡연과 연관있다고 말했다.

부부45%, “이혼 고려해봐”

이혼은 절대 안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5명 중 1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에 가까운 기혼남녀가 이혼을 고려한 적이 있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이혼을 고려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국의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혼은 절대 안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21.5%였고, 37.3%는 ‘가급적 이혼해선 안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설립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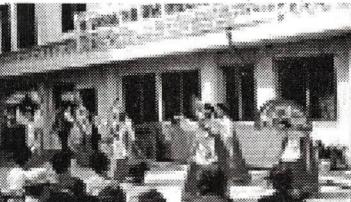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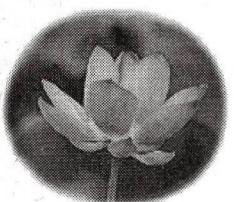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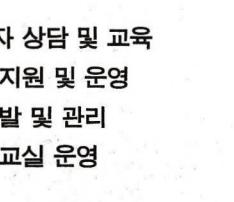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여 인정된 사회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다.

주요사업내용

노인복지사업

- 역삼 노인복지센터 운영
- 주간보호 사업
- 만성질환과 기능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낮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기초과 노인들이 경제, 신체,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
- 재가복지 사업
- 지역의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을 발굴하고 경제, 정서적 서비스를 통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
- 은빛축제 :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마당
-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 55세 이상 고령자 취업알선

지역복지사업

-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소녀 가정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 
- 
- 
- 

청소년복지사업

-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노인 휴양시설 건립 추진

- 아름다운 노후생활
-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
- 납골당 건립 추진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림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은 재단의 사회복지 사업에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회원

일반회원 - 월 1천원(1구좌) 이상
단체회원 - 단체명으로 월 5만원 이상

찬조회원 - 일정금액 후원
특별회원 - 50만원 이상 후원

후원금 납입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아제아제바라아제

불사(佛事)가 불사(不思)가 되어서는 안 돼는 이유

'해인사의 대형불사 및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세간이 어지러운데 더욱 더 혼란스런 마음이 일었다. 마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의 깊이가 사찰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인지, 출가자들의 삶의 방식이 세간과 무엇을 달리하는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

요즘 사찰의 불사방식은 대부분 큰 규모와 현대적 시설을 잘 갖추는 것을 지향한다. 이러한 현상은 큰 사찰일수록 더욱 눈에 띈다. 그리고 대형 불사의 이유로는 늘 '신도들과 스님들의 수행공간 확보 또는 찬란한 문화유산의 보전'이라는 명분이 전면에 등장한다. 물론, 거론되는 명분들이 모두 수긍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고 몰아 부칠 수는 없다. 그러나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불사나 신도들에게 지나친 물질적 부담을 암암리에 강제하는 불사는 세인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한다. 또한, 불사라는 것이 사찰건물의 변화에 주력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은 우리 불자들이 좋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되는 마음마저 든다.

지난 7월 28일 조계사불교대학에서 작은 토론회가 있었다. 인드라당생명공동체가 주최하는

**'생명살림' 이란 '모두가 함께 사는 공생의 길을 실천에 옮기자
출가수행자는 진정 우리자신을
비추어볼 수 있는 거울'**

'생명살림 불사를 위한 토론회'가 그것인데, 기존불사에 대한 고찰 및 불사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제시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며 물론, 일반 참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잠시, 생명살림의 불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재가자들을 위한 수행과 교육의 공간인 '생명살림도량' 건립.

둘째, 농촌과 농촌을 살리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는 '친환경공양 미 운동'

셋째, 생명살림운동을 제도적으로 불교계에 정착시키는 '생명살림 불교대학' 건립과 '생명살림포교사' 양성 등이다.

여기서 '생명살림' 이란 '모두가 함께 사는 공생의 길을 실천에 옮기자'는 뜻에서 부처진 이름일진데 아직은 불자대중에게 생소한 개념이지만, 앞으로 이론적 토대 구축과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 몇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실행해 나간다면 새로운 불교운동으로 삶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기존의 불사가 몇몇 실세 종진스님들의 밤의와 문종스

님들의 대중공사로 이루어진 반면, 이 '생명살림불사'는 재가자들의 밤의와 뜻있는 출가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을 듯싶다.

토론은 특별한 제약 없이 자유스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기존불사 모두가 잘못되었다고 몰아 부치지도 않았고, 기존불사 중에서도 배우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 있다면 계승해야 되며, 기왕 불사를 할 것이면, 주변 환경에 거슬리지 않도록 함은 물론 가능하면 진정한 문화적 가치가 있도록 건립하여 후세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더불어 주변의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불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등 불교의 사회적 기능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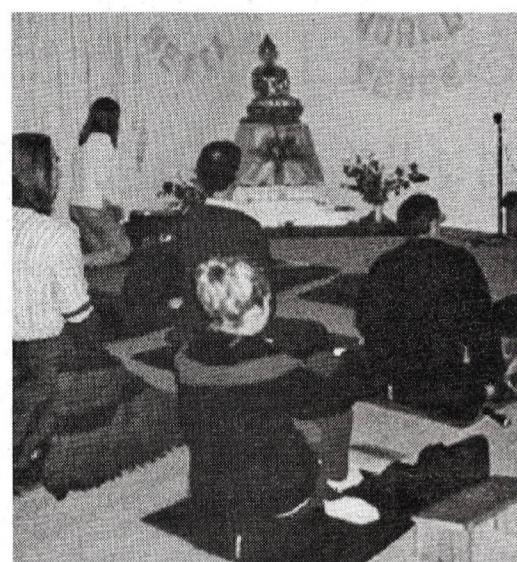
지식이 소수에게 집중된 우리의 고대사회에서 불교는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지 역할을 해왔다. 어쩜, 그 시대에 불교계에서 주도하는 대형불사는 왕실과 귀족들의 든든한 후원과 불사에 참여함으로써 불은 입고자하는 착하고 신심 있는 백성들의 암묵적인 지지를 배경으로 큰 원성이 없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중교류의 발달로 민주적 절차가 일반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이라도 무모한 듯 보이는 일은 진행과정에서 반드시 벽에 부딪치게 되어 있다. 여기에 부족하거나 마 필자의 생각을 하거나 덧붙인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만큼 규모가 큰 대형불사의 경우는 참으로 제대로 된 전문가와 출재가자로 '불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교계내부는 물론 일반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공의를 수차례 거치는 과정을 통해 수긍할 만한 동의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무난한 방법이라고 본다. 여기에 타종교인들의 방해공작 같은 이유를 들고 나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자칫 문제를 너무 낮은 수준에서 해결하려는 어설픈 극치로 보일 수 있다.

소유하는 것이 많을수록 집착이 많아지고 집착이 많아지면 고통도 많아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자라면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가르침이다. 다만 그것을 자신의 수행으로 삼아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적잖은 자기 절제력이 없이는 입으로만 아는 것 일뿐 진실로는 감히 훔내기에도 쉽지 않다.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가치가 최상위를 점한 이 시대에 덜 가지려고 노력하는 출가수행자는 진정 우리자신을 비추어볼 수 있는 거울인 셈이다. 그리고 많이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시대의 불자들에게 오히려 그 의미가 무거워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김선미/인드라당 생명공동체 총무국장〉

인터넷을 통해 세계속의 불교가 어떻게 성장, 발전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불교가 아시아를 통해 전파되었을 지라도 현대까지 서양에 직접적으로 전파되지 않았다. 아소카 왕때 서양에 보내진 포교사들은 서양전파에 실패하였다. 서양의 불교전파는 서양의 학자, 철학자, 작가, 예술가의 서적, 유럽과 북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에 다양한 형태의 불교를 가지고 온 아시아 이민들에게 의한 세 분류의 주요한 통로를 통해 전파되었다.



자기 스스로의 체험을 강조한 불교형태는 많은 서양인들에게 매력을 주었다. 그들은 어떤 것을 믿음에 있어 의문점을 가지지 않고 단지 부처의 사상과 철학에 따라 실천할 뿐이었다. 통신수단의 발달을 통해 서양인들은 단면적인 불교사상과 정보보다 다양하고 최신의 불교에 관한 정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불교수행에 대한 정보와 사상은 많은 서양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The influence of Buddhism(Buddhism의 영향)

평화와 모든 생물에 대한 자비와 보살핌의 불교사상은 서양의 많은 그룹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불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 식물, 새, 곤충, 동물들을 아끼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최근 인간이 공해를 유발하고, 나무와 숲을 훼손시킴으로써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공감 대를 형성하였다.

최근에는 불교인들이 서양으로 이주하였고, 그들은 갈등과 반목의 사회에서 피안처 역할을 하였다. 일례로 1959년에 중국이 티벳을 침략한 후 많은 티벳인들이 서양으로 이동하였고, 1950년대와 60년대 인도차이나반도의 전쟁으로 많은 베트

남인들도 유럽, 호주, 미국으로 이동하여 거주하였다.

태국과 같은 동양의 불교인들은 서양의 대도시에서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들은 그 도시에서 불교를 신앙하여 불교사원을 만들었다.

Introduction of Buddhism to Europe (불교의 유럽소개)

18세기에 아시아를 침략한 사람들에 의해 많은 불교교적이 유럽에 소개되었다. 불교교적이 유럽의 학자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여 연구하게 되었고, 19세기 중반에는 몇 개의 불교교적이 유럽언어로 번역되었다.

불교의 가르침은 많은 유럽학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들의 몇 명은 불교사상을 그들의 자서전에 소개하였다. 20세기 초에는 많은 불교교작들이 영어, 불어, 독어로 번역되었다.

Growth of Buddhism in Europe (유럽에서 불교의 성장)

20세기초에 불교의 연구는 학자들의 연구에만 한정되고 일상화되지는 않았다. 그후 이러한 형태는 변화되어 많은 유럽인들은 불교의 서적을 읽는 것만으로 불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불교국기를 방문하여 불교수행법을 실수하고 승가생활을 경험하였다.

후에 불교단체들은 유럽의 주요도시에서 발전되었고, 이들중의 하나인 런던불교단체는 1920년 설립되었다. 그것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조직이었다. 이러한 불교단체들은 명상센터와 강의, 불교문화를 통해 서양의 불교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20세기 초에 불교를 연구하기 위해 동양을 방문한 많은 유럽인들은 고국으로 돌아와 승려가 되거나 유럽에 불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아시아에 있는 스리랑카와 다른 불교국가들의 승가단체와 교류를 강화하였고, 최근에는 유럽 불교를 성장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여 유럽의 불교단체의 회원들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많은 사원들이 개설되고 있다.

그들의 회원들은 대부분 학자와 전문가들이다. 최근 유럽에 유행하고 있는 불교단체는 테라바다, 퓨어랜드, 젠, 요가 니치렌소추이다.

Introduction of Buddhism to America (불교의 미국소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학자들은 19세기에 소개된 불교사상에 관심을 가졌고, 미국의 가장 오래된 대학에서는 동양학과를 개설하여 불교를 연구하였다. 19세기 후기에는 중국의 이민들이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였고, 이들은 많은 대승불교 수행법을 소개하고 사원을 개설하였다.

그후 일본 이민들은 사원을 개설할 뿐만 아니라 일본불교의 각 종단스님들을 초청하여 법회를 통행하였다. 그러나 불교활동은 이민들 사이에만 포교되었다.

19세기 말경에는 스리랑카의 다르마팔라와 일본 젠센터의 소엔사루가 시카고의 지역종교대회에 참석하여 불교에 대하여 강연한 후 청중들은 감동되어 미국에 전불교의 전립에 도움을 주었다.

그 기간동안 종교단체연합은 미국에 불교를 전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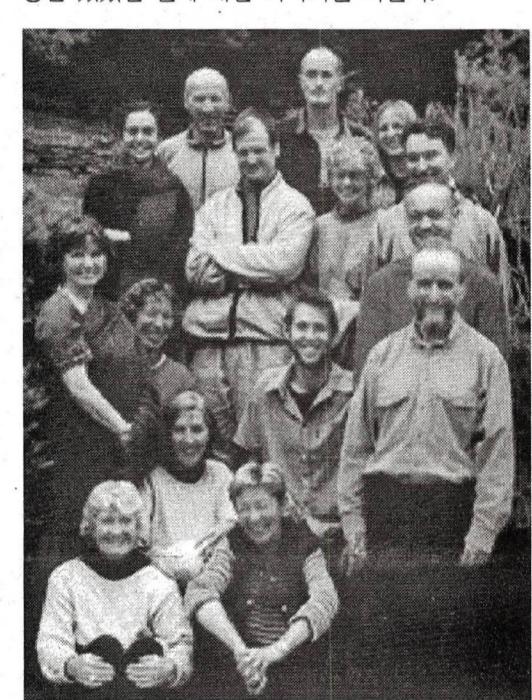
Growth of Buddhism in America (미국에서의 불교성장)

불교가 미국전체에 전파된 때는 20세기 후반이다. 미국에서 불교 포교사들은 2차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아시아에서 니치렌소수와 젠불교를 가지고 돌아왔다. 19세기에는 문학과 예술분야에 불교가 놀라운 인기를 보였고 이러한 일은 불교의 성장에 영향을 주었다. 1959년 이후 티벳인들이 미국으로 이동할 때 바즈라이나(밀교) 불교를 소개하였고 불교는 그곳에서 터전을 마련하였다. 냉전 기간동안 학술적 관심은 고조되었고, 불교에 관심 있는 연구들이 미국 대학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At Western Buddhism Centres (서양의 불교센터)

동양에서처럼 서양의 불교수행법은 사람들은 다리를 접고 손을 무릎속에 손을 넣고 방석에 앉아 명상하는 방법이다. 학생들은 매일 개인적인 소개와 저녁 설법을 듣는 상담을 수반하여 명상하면서 견기, 애아서 명상하는 수행을 한다.

어떤 그룹들은 흥겨운 노래를 하거나 부처님의 상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연습을 하기도 한다. 테라베드 그룹은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아침에 스님들에게 줄을 서서 공양을 제공하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티벳그룹은 활동적이고, 흥겹고, 서로간에 둘고 담고, 종을 울린다. 일본 전그룹은 매우 엄숙하여 많은 시간을 조용히 명상하는 데 소비한다. 불교센터의 운영자들은 사람들이 불교를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오늘날 존재하는 거대한 불교센터는 호주, 뉴질랜드, 유럽, 남북아메리카에 널리 퍼져있다. 불교는 서양인들에게 많은 호기심을 유발하며 그들의 인생흐름을 변화시키고 있다.

〈자료출처 : http://www.buddhanet.net/e-learning/buddhistworld/to-west.htm 번역 : 김용주/총지종보〉

외로운 가을, 당신의 마음에 달라이 라마의 행복이 밀려옵니다



달라이 라마의 아주 특별한 선물

달라이 라마 지음/강주현 옮김 신국판 변형 값 8500원

달라이 라마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존재, 심지어 우리에게 악의를 품은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두려워하며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에게도 행복해지고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우리만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실로 걱정해 주십시오.

우리 친구를 걱정해 주듯이 우리 적을 걱정해 주십시오. 이제서야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사랑하는 마음과 연민의 정을 키웁시다!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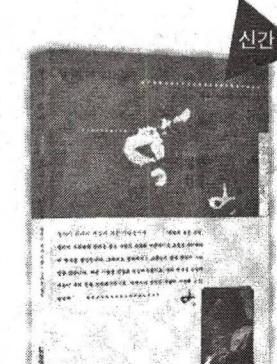
모든 사람을 친구처럼 대하십시오.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충고가 무척이나 간단한 것이지만 이 충고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한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달라이 라마가 조금의 가식도 없는 순수한 연민으로 삶의 연륜, 상황, 역할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짧막한 조언들을 담았다.

그리고 호탕한 웃음까지 터트리면서 달라이 라마의 진실어린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 책은 바로 살아 있는 부처 달라이 라마가

여러분들에게 가슴으로 전하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다.

총지종 제9대 종령 효강 대종사 추대법회

종령 법어



공사 담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립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교계 대덕 큰스님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각지에서 올라오신 승직자 여러분들과 교도 대표 여러분들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민한 제가 총지종의 종령이라는 존엄한 자리에서 전법과 사법을 관찰하는 중책을 맡게 된데 대하여 실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법계의 뜻이요, 종단의 부흥을 열망하는 수많은 종도들의 염원입니다.

그리고 종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는 화합을 깨뜨리는 좋은 소견의 파벌주의는 단연코 척결되어야 합니다.

법계의 사명으로 금강 같이 뭉쳐서 일어난 교단이 우리 총지종입니다. 종단의 종책에 일사분란하게 수순하여 매진하는 길만이 우리 종단을 다시 반석에 올려놓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종단도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종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래의 종교단체는 고루하게 혼자만의 영역을 고집해서는 큰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인성을 개발하여 사회에 기여하게 하는 역할과 더불어 복지를 통한 사회의 소외 계층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미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총지종도 불교계의 사회참여에 일익을 담당하는 종단으로 당당히 일어서야 합니다.

아울러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재양성입니다. 우리 종단은 그동안 인재 양성에 너무 소홀한 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출중한 인재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와 같은 소아병적인 안목으로 우수한 인재의 등을 꺼리고 배척한다면 종단의 앞날은 막무가내로 돌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는 인재의 발굴과 육성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총지종은 창족 33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루한 생각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제2의 창족 정신으로 새롭게 도약할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시대에 맞추어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맙니다.

오늘의 이 모임을 계기로 저 또한 여러분 앞에 분골쇄신 종단의 발전과 이 땅의 불교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애憎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내내 안녕을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 반메훔!

통리원장 봉행사



불교총지종 제9대 종령 추대식을 맞이하여 공사다 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립해 주신 교계대덕 스님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대법회를 위하여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본종의 승직자 여러분과 교도 대표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종단에 일사분란하게 수순하여 매진하는 길만이 우리 종단을 다시 반석에 올려놓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종단도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종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래의 종교단체는 고루하게 혼자만의 영역을 고집해서는 큰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인성을 개발하여 사회에 기여하게 하는 역할과 더불어 복지를 통한 사회의 소외 계층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미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총지종도 불교계의 사회참여에 일익을 담당하는 종단으로 당당히 일어서야 합니다.

아울러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재양성입니다. 우리 종단은 그동안 인재 양성에 너무 소홀한 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출중한 인재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와 같은 소아병적인 안목으로 우수한 인재의 등을 꺼리고 배척한다면 종단의 앞날은 막무가내로 돌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는 인재의 발굴과 육성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총지종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종령으로

추대되신 효강 대종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효

강 종령님의 법운옹창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는 법계의 사명을 쟁여서는 안된다는 승단 중진들의 거듭된 진언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이제 효강 대종사께서 종령에 추대되심으로서 우리 종단은 다시 종단의 정신적 지주를 얻게 되었으며, 그동안 산적한 종단의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명쾌한 단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두루 아시다시피, 효강 대종사께서는 과거에 통리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도 엄격한 계율과 소신 있는 지도력으로 종단을 이끌어 오셨던 바, 이제 종단의 가장 어른이신 종령으로서 종단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시리라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효강 종령님의 영도력으로 우리 총지종이 다시 한번 비약하여 이 나라 불교계는 물론 전 세계의 불교발전을 위하여 우리 총지종이 하나의 초석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효강 종령님의 건강과 법운 응창을 기원하며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종의회 의장 추대사



회봉사활동의 활성화로 종단의 기틀을 바로 잡고, 종단을 반석위에 올려놓으신 종단의 최고 어르신이십니다.

오늘 효강 대종사님의 종령 추대는 총지종 종단 민의 추대가 아니라 우리 이천만 불자와 추대이며 더 나아가서는 시방세계 유정 무정 모든 만물들의 추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언제나 장엄한 법좌이며, 조금도 흐려질 수 없는 청정한 보좌인 것입니다.

이제 효강 대종사님의 종령 추대를 통해 총지종은 중생제도의 대서원을 실현하고, 세계 도처에서 번뇌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가자력과 더불어 세계속의 총지종을 창건하는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효강 대종사님의 종령 추대를 종단과 사부대중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경하드립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축사



심속의 포교와 사회복지의 활성화를 통해 총지종의 종도들로부터 추앙을 받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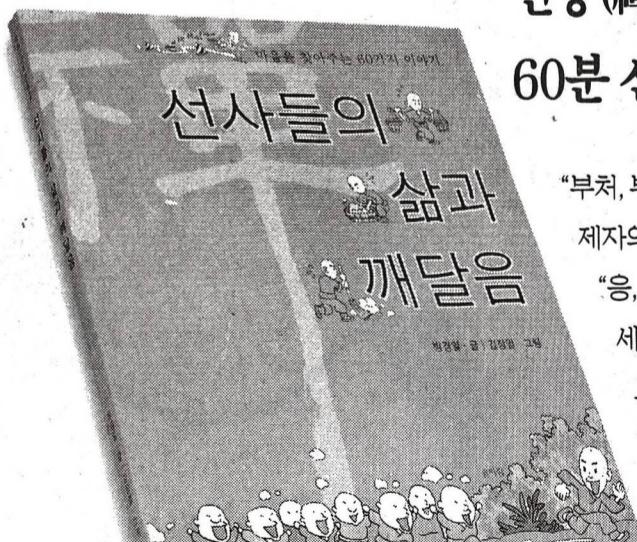
또한 총지종의 기틀을 바로잡고, 반석위에 올리는데 일조하였으며, 종단 내적으로는 통리원장, 법장원장을 역임하였고, 불교계에서는 불교방송이나 불교필리비전 대표이사를 역임하여 불교의 포교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총지종은 새로 추대된 효강 종령님을 모시고 교회활성화로 대중들에게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해탈을 이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 하시고, 다시한번 효강 대종사님의 불교 총지종 종령추대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마음을 찾아주는 60가지 이야기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



선종(禪宗)의 탄생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60분 선사들의 삶이 여러분 곁에 다가옵니다!

“부처, 부처 하는데 도대체 부처가 뭡니까?”라는
제자의 물음에 어느 선사(禪師)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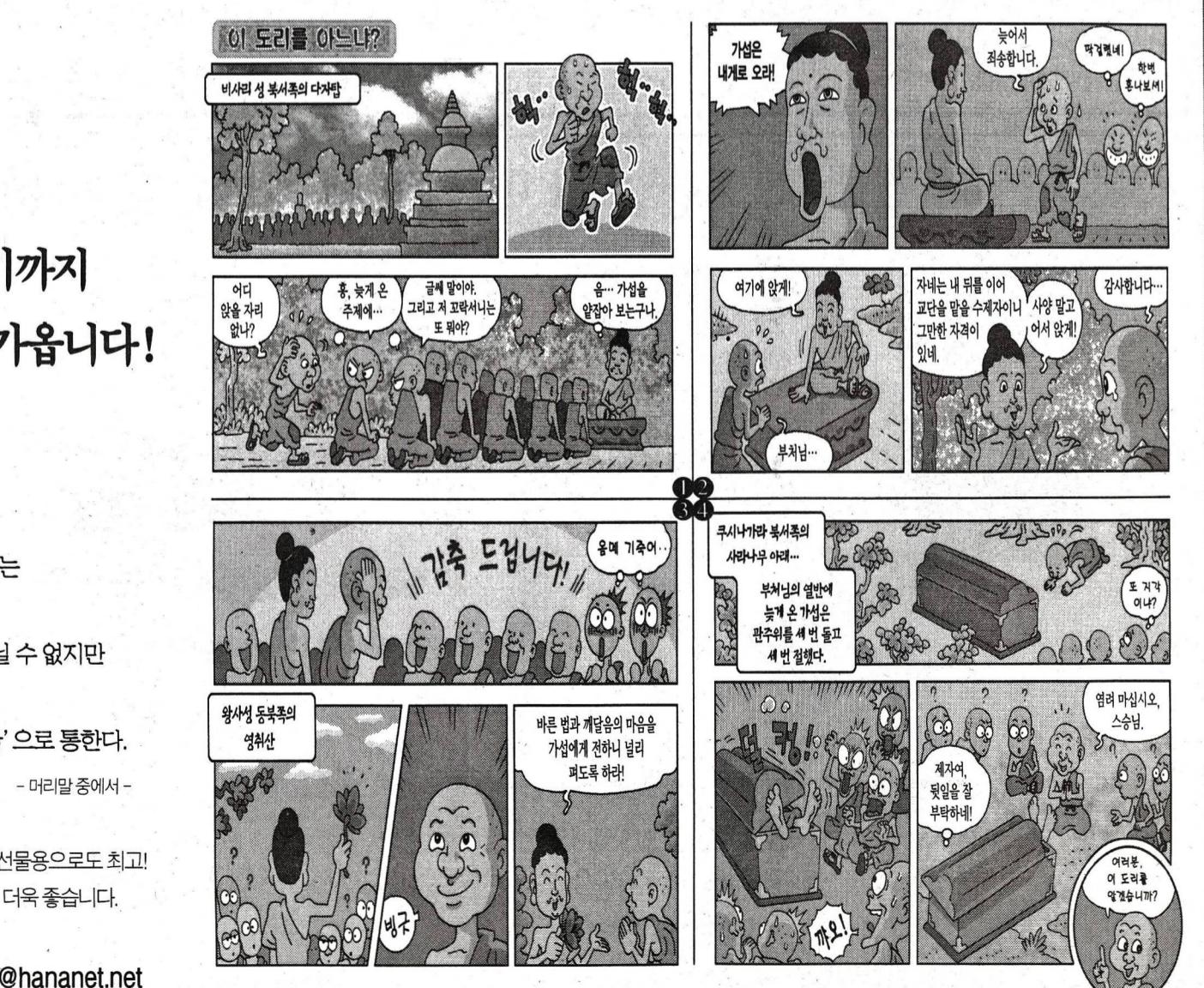
“응, 그거 ‘마른 뚱막대기’야!”라고 했다.

세상에, 우주만물의 본성과 그 작용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고귀한 부처님이 겨우 뚱막대기라니!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망발이 아닐 수 없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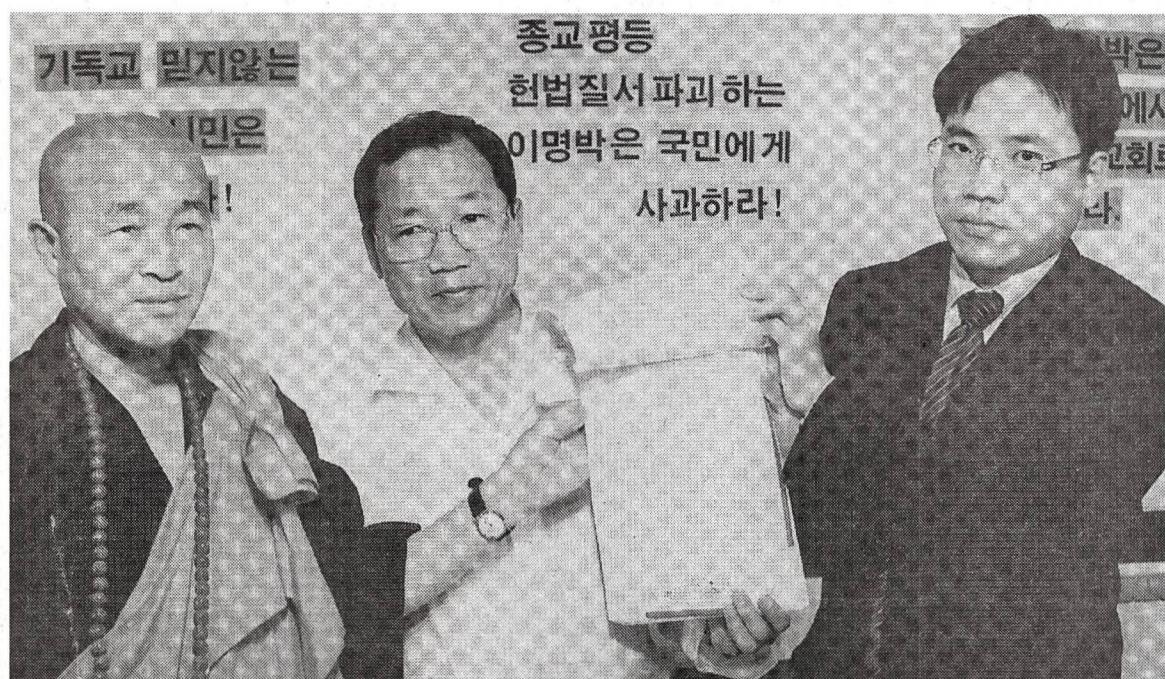
선사의 세계에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일러 준 정확한 대답’으로 통한다.



서울시장 상대 집단소송

시민·불교인사 108명 '서울시 봉헌' 망언 제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하나님에 다스리는 거룩한 도시이며 서울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서울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서울 기독교청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라고 기독교청년연합대회에서 발언을 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시 봉헌'을 둘러싸고 불교계가 '사회와 종교화합실현을 위한 범불교대회'를 개최하는 등 일단락을 짓는 양상을 보이다가 지난 7월 26일 집단소송을 계기로 다시 한번 불길이 되살아났다.

소송인단은 이명박 서울시장은 ▲현행헌법에 규정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위반 ▲종교평등의 원칙 ▲공무원법상 직무전념의 의무위반 ▲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진각종 '정진실수' 교육

진각대학 4학년 북언, 발우공양, 정진수행

진각종은 진각대학 4학년생 7명을 대상으로 '정진실수' 프로그램을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경주 산내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진각대학은 진각종의 스승인 정사, 전수의 계를 받기 전 이수하는 교육과정으로 이번에 실시하는 '정진실수' 교육은 '북언, 바루공양, 정진으로 선방에서 스님들이 수행하는 형태이다.

본격적인 정진실수에 앞서 첫째 날에는 일단 불사를 시작으로 해정심인당 법경 정사의 지도로 바루공양을 체험하고, 경당 진각대학 교무처장의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본격적인 정진실수에 앞서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일 새벽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북언으로 일관하면서 하루 9시간의 정진수행을 기본으로 하고 수행과 공양시간 외에는 '심신 밝히는 공부', '밝게 사는 법', '육자진언 염송하는 생활', 등 진각성준 회당 대종사의

서울시민과 불교인사 108명의 소송인단은 '동산반야회, 평불협, 불교인권위원회 등 7개단체로 구성된 '이명박 시장 퇴진 불교운동본부'와 뜻을 같이해 퇴진운동을 벌이기로 합의했다"며 "서울시 봉헌으로 인한 종교적 갈등 및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기 위해 집단소송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 ▲서울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근거로 제시했다.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은 성명서에서 이명박 시장을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려 했지만 개인 홈페이지

지를 이용한 사과문 어디에도 '서울봉헌'이라는 문구도 없고 '서울시 퇴장도 없다'고 밝히고 "이시장은 봉헌 사건 자체를 얼버무려 봉합하려는 알짜한 수를 쓰고 있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나의 종교 만큼 이웃의 종교 역시 소중하다는 점을 일깨우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나리종합법률사무소 김경규 변호사는 "이명박 시장의 일언은 분명 서울시민 원고들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것"이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용해 정식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송인단은 이날 이명박 시장을 상대로 1인 10만원씩 1천 8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출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태고종이 몽골국립대학교(총장 간토소그)한국어에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몽골불교계와의 교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외불교포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번 불사를 위해 태고종은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몽골 국립대학 한국어과에 장학금을 전달을 위한 몽골사찰순례대법회'를 봉행하고, 몽골국립대학 한국어과 재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태고종 일행은 법회 기간 중 몽골국립대학을 방문한 것을 비롯해서 체렌다바 몽골대통령 종교특보와 오찬을 하고, 양국의 불교교류와 몽골불교의 현황에 대해 환담하기도 했다.

또 몽골불교의 총본산적인 간등 사원, 초이진라마사원 등을 참배하고 몽골불교 지도자들과 만나 몽골불교의 활동과 승려교육 및 수행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국 불교교류와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몽골국립대학 장학금 전달식은 23일 오전 부총장실에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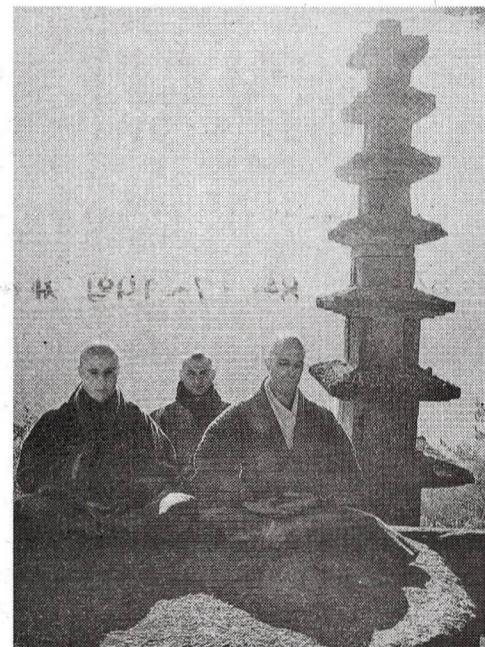
이 전달식은 운산 태고종 총무 원장과 박인공 종양종의회 의장 스님을 비롯한 종단 간부스님과 슈란다바 몽골대 부총장과 한국인으로서 한국어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남정주 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장학금 전달식을 마친 후 몽골 국립대학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태고종과 몽골 국립대학의 상호교류 증진방안 등에 관해 활발히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운산 총무원장은 "종단의 이번 방문이 현재 몽골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교 재건운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바라며, 학생들이 부지런히 한국어를 익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불교 태고종에 관심을 가지

기사제보 및 구독문의
☎ 02)552-1080 ~ 3

불교계 웰빙문화로 포교 요가, 명상, 다채로운 프로그램개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사찰들은 각종 전시회, 명상, 요가, 나를 찾는 여행, 산사 음악회 등 웰빙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으며 포교의 활로를 찾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 육지장사, 강화도 전등사, 선원사, 봉선사, 대원사 등은 대표적인 사찰들이다. 남양주 육지장사는 산사 영화제에 이어 국내최고의 락계의 수퍼스타로 불리는 블랙홀, 베베등을 초청하는 대규모 '명상 락 수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또 물을 바로 마시기, 숲길을 걸으며 명상하기 프로그램 등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강화 선원사는 인기 최고인 황토 불한증막이 있다. 200평의 대지위에 건립된 3층짜리 황토한증막을 하루 200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높다. 또 600여평의 연꽃밭, 연뿌리와 연잎으로 만든 연냉면 등 사찰음식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전등사는 명상을 악회, 사찰사진 전시회 등 사찰문화와 결합된 폭넓은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인도퓨전그룹인 생기프렌즈를 초청 명상음악회를 개최하였다.

봉선사는 웰빙이 곁들여진 광릉봉선사 연꽃축제, 명상 전문가인 분다라끼다리스와 함께한 광릉수목원 웰빙걷기 명상프로그램, 사찰음식, 영화제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전남 보성의 대원사는 연꽃 위의 청정이슬 마시기 명상, 하늘

호수 생연꽃 차 시음회, 연꽃피는 소리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 연중 운영하고 있다. 대구 동화사는 통일 대불전에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요가를 지도해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다.

이와 같이 각 사찰들은 사찰의 자연친화적인 공간과 연계하여 각종 웰빙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전등사는 명상을 악회, 사찰사진 전시회 등 사찰문화와 결합된 폭넓은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인도퓨전그룹인 생기프렌즈를 초청 명상음악회를 개최하였다.

봉선사는 웰빙이 곁들여진 광릉봉선사 연꽃축제, 명상 전문가인 분다라끼다리스와 함께한 광릉수목원 웰빙걷기 명상프로그램, 사찰음식, 영화제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서울경인교구 합창단이 종단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부처님 세계

나도 한마디

오늘은 총지사에서 제9대 종령 효감대종사 추대법회를 봉행하기 위해 서울경인교구 합창단 보살들은 노래연습을 하느라고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별걸음을 재촉한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합창단 보살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총지사에 도착하여 오늘 부를 의식곡을 준비하기 위해 목청을 가다듬고 있었다.

서울경인교구 합창단이 종단

공양을 한 것이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시련도 많았다. 어떤 때는 늙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후회도 했었다.

그러나 오늘 행사에서 무더운 날씨 때문에 짐질방을 방불케하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모든 보살들이 아름다운 협주곡을 만들고 있을 때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환희심이 솟아났다.

행사를 마치고 합창단 보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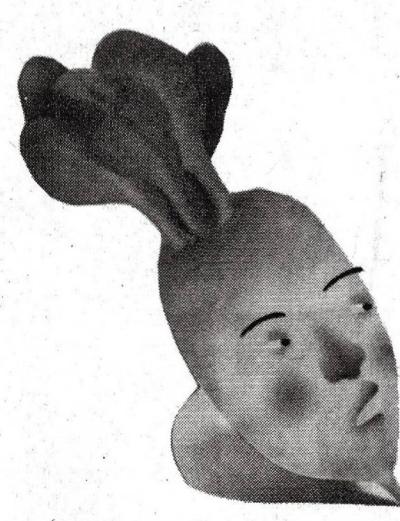
교도들이 찾아와 서로간에 "수고 했다."라고 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바로 부처님의 천상세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조그만 일에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가짐과 말 한마디를 행할 때 아름다운 부처님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는 부처님의 세계가 바로 눈앞에서 현현하는 것 같았다.

〈최재숙/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적십자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이 등불이 깨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알버트 A슈바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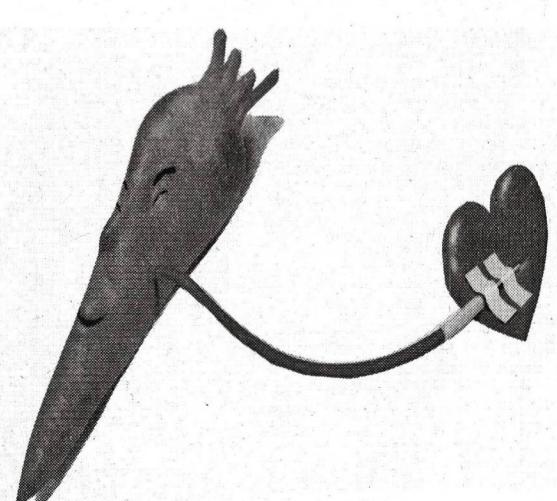
선진외국에서는

자국에서 필요로 하는 혈액은

자국에서 해결토록 하는 자금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막대한 외화를 들여서 혈액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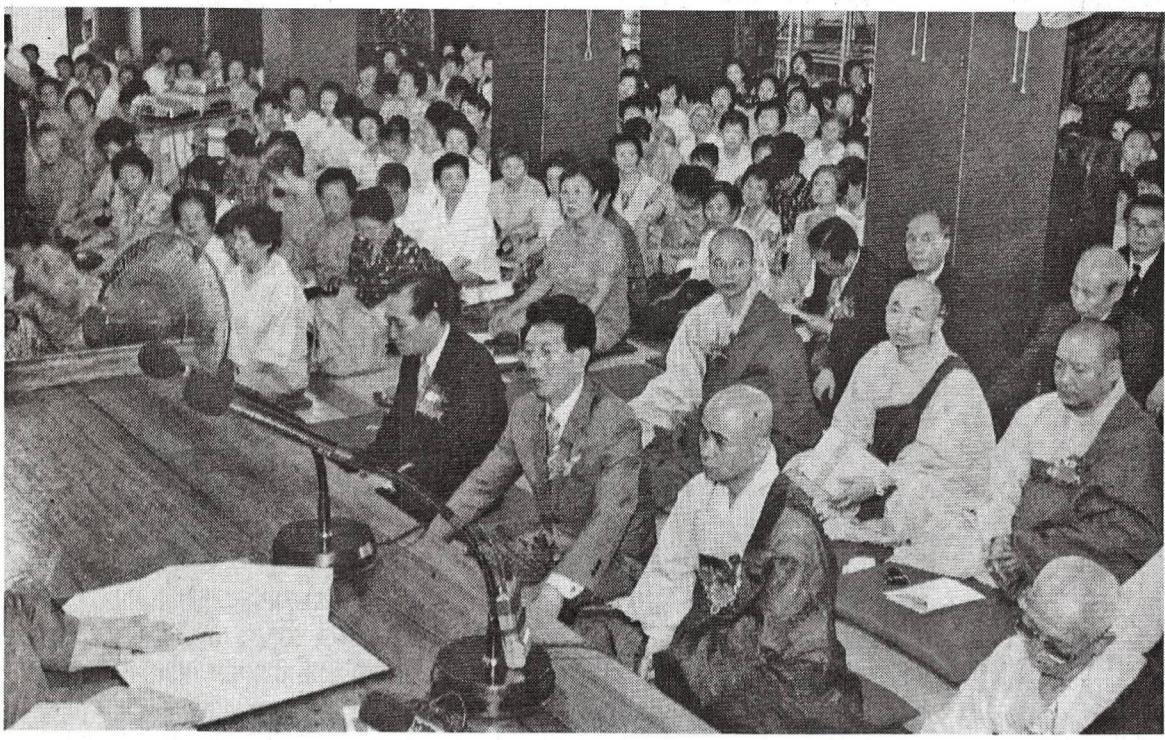


다온이지!

너한테 했나?

+ 대한적십자사

동국역경원 개원 40주년 법회 한문·한글 통합대장경구축에 주력



동국역경원(원장 월운스님)은 지난 7월 2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4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봉

행했다.
동국역경원은 1964년 개원하여 한글대장경을 완간했고, 고려대장경 연구소를 개원하여 불교경전연

구에 전념해 왔다.

이날 행사에서 동국역경원 후원회장인 석주스님은 법어에서 "2001년 역사적인 완간 고불법회를 봉행

했지만 본의아니게 오류도 생겼고 다가오는 세대를 위한 전산화작업 불사를 2010년까지 마무리하는 원력을 세우고 있다."며 "불경의 연구와 역경은 어두운 광속에 파묻혀 있는 진주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등불을 밝히는 것이 불제자의 책임이다."라고 역경에 대한 의무감을 강조했다.

역경원장 월운스님은 "어려운가

운데에도 불구하고 역경사업을 도와준 모든 불자들에게 감사표현을 표하며, 불경의 전산화작업에 매년 3억 5천만원이 필요하며, 이것을 완성할 때 한국불교가 국제사회에서 위신과 자존심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앞으로 역경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모든 불자들이 쉽게 경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용맹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동국역경원은 지난 65년 한글대장경 제1집 "잡야함경" 출간한 이래 2001년 한글대장경 318책 완간하는 업적을 남겼다.

또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와 공동으로 국고의 보조를 받아 전산화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5년간의 계획으로 고려대장경 연구소와 함께 한문·한글 통합 대장경 구축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불교계 짧은 층과 남자신도 급증 한국갤럽 1984~2004년 종교실태조사

한국갤럽에서 1984년부터 2004년 까지 네차례에 걸쳐 만18세이상 64세이하의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종교실태조사에서 남성불자와 짧은 층의 불교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교세가 높은 대구·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기독교에 비해 약세를 보였던 호남지역 등이 지난 20년간 50~6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개신교·천주교가 약진하고 불교는 계속 정체돼 종교의 지역별 불균형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불교인구는 전체 종교인구의 24.4%로 개신교 21.4%, 천주교 6.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1984년 18.8%에 비하면 5.6% 증가한 수치이다. 이중 남성불자의 수는 지난 1984년 14%보다 10.4% 증가한 24.4%로 여성 중심의 불교가 점차 성별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남성불자의 증가세는 탈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으며, 사회 주 활동층이던 남성들이 생산과 발전에 대한 요구를 개인의 삶과 신앙적 활동에 대한 욕구로 전환됐기 때문에 분석된다.

연령별 종교인구는 30대 이하의 불교인이 1984년 20.4%에서 2004년 29.4%로 10% 가량 증가해 불교가 젊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30대이하 개신교도 40.0%에서 46.6%로 지난 20년간 6.6% 증가했다.

지역별로 불교인구는 부산·울산·경남지역 (44.4%), 대구·경북지역 (33.4%)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전·충청지역 등

이 14.4%에서 20.5%로, 28.8%에서 33.4%로 성장했다. 서울·경기지역은 15~17%로 20년전과 거의 변화가 없었다.

비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7.7%가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로 종교에 대한 무관심을 꼽았다. 1984년 9.1%에 비하면 크게 높아진 수치이다. 또한 과거에 신앙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비종교인 중 29.9%가 1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의하면 2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 대체로 계속 그 종교를 믿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에서는 "불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기독교의 포교방법의 모방이 아닌 한국 고유의 불교전통 문화를 중심으로 연령과 성별, 계층에 걸맞는 체계적인 포교방안 마련이 절실히"라는 시사점을 남겼다.

"문명시대의 아시아 문화와 종교"의 주제로

8월 17~19일, 세계교수불자들 한국 대회

제1회 세계교수불자대회가 오는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백담사 만해미을에서 영국, 미국, 일본, 태국, 한국 등 세계불교학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명시대의 아시아 문화와 종교"의 주제로 개최된다.

17일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의 1부에서는 영국 런던대학의 카렐 위너 교수가 '불교와 평화'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국대 이준교수가 '불교적 실상과 현대과학의 비교문화적 교감'을 주제로 각각 기조강연을 한다.

18일 '종교 문명간의 대화'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 2부를 갖는다.

신행제법 ⑯

부처님 공덕갚기 위해 노력 ②



나서 "옴마니반메 흄"을 외우니까 나쁜 사람이 도망갔다고 말하기에 마음 속에서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불공을 하면서 위기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스승님을 찾아가 방편을 들었고 스승님께서는 어머님 품안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셨고, 인간사는 다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는 법이며, 항상 참고 인내하라"고 하시며 회초리를 치셨고 어떤 때는 스승님께 반향을 할 때도 있었지만 집에 와서는 참회를 하였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불공하면 소원이 성취됨

힘들고 기쁠 때도 항상 참고 인내하라

어가는 사람도 살렸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방편이 없는지"

여쭈었더니 스승님께서는 "열심히 불공을 하면 소원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총지종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은 서울경인지회의 총무로, 학창단의 일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부처님의 공덕갚기 위해 저의 모든 정성을 바쳐서 부처님 사업을 해보리라 다짐해 봤습니다.

(끝)

자원봉사활동 정부지원

정부,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 마련

정부가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자원봉사활동 진흥법안'을 입안, 관련 법제정 논의가 있는 지 10년 만인 7월 12일 공청회를 거쳐 초안을 발표했다.

국가 차원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규모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불교계를 비롯하여 관련단체들이 积极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우선 이번 법안의 핵심은 봉사자 및 단체들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적 지원 및 예산·경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봉사자 보호 차원의 상해보험제도 도입, △봉사단체 출연기금의 조세감면, △국가 및 지자체의 봉사센터 설립시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긍정적인 지원책이 법안에 포함돼 있어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지원틀을 갖추고 있다.

또한 조직적인 봉사활동 네트워크 구축을 명시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둘 기본계획과 정

책수립, 제도개선 등을 맡게 하고, 민간 차원에서는 한국자원봉사협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이 운영케 하였다.

이와 관련, 불교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범종단적 '불교봉사단체협의회'를 조속히 결성하고, 불교계 복지법인 및 봉사관련 단체의 인적·물적자원 및 현황을 파악해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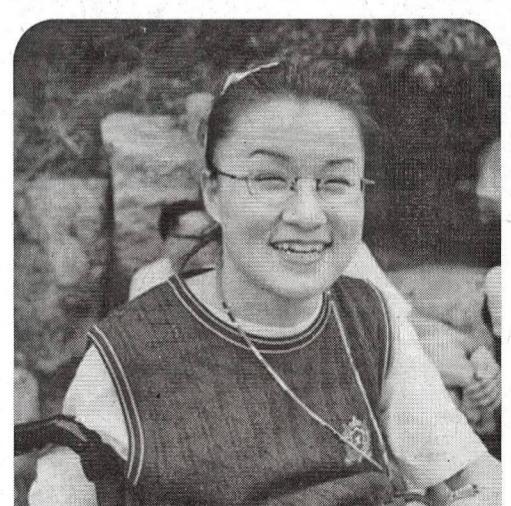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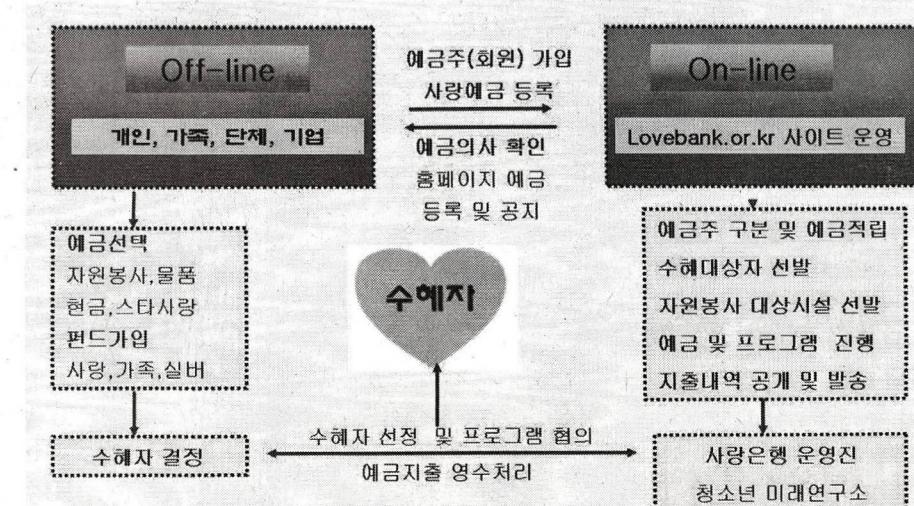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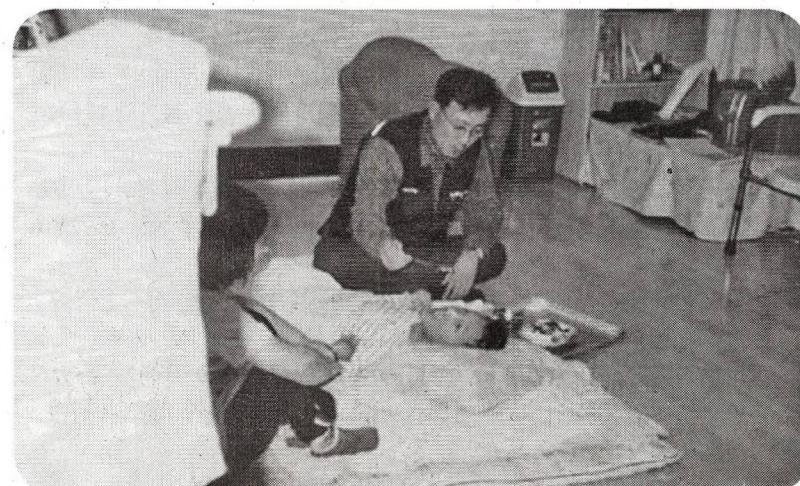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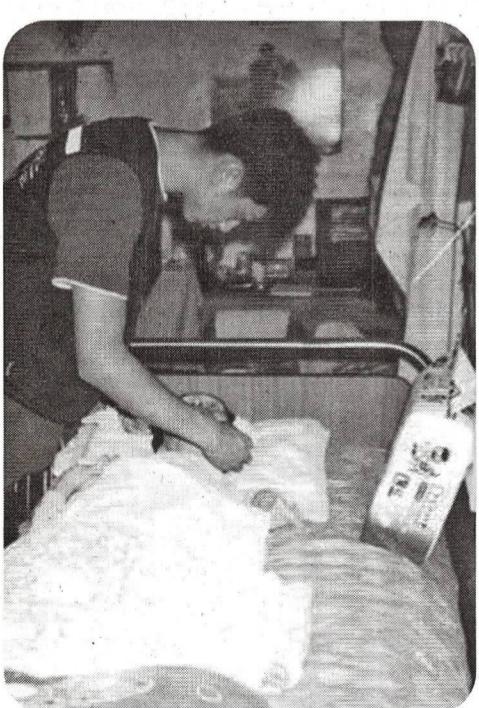
이러한 불교계 협의체를 통해 복지법인·산하·위탁 복지관 및 정부의 조건부 시설의 허가기준에 상관없이 전통적인 전통적인 지원을 통해 인적자원이 부족한 교계·복지관에

자원봉사자를 파견하고, 불자들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당신의 사랑을 예금하세요

사랑은행(Lovebank.or.kr)은 On-line과 Off-line에서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인간사랑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랑의 순길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직접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아름다운 세상과 희망찬 미래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청소년 미래연구소
Institute for Youth Future
www.lovebank.or.kr

우리 사원, 우리 스승님

사원탐방은 교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습니다. 스승님, 교도분들의 따뜻한 이야기, 신앙체험담, 사원의 신도회 자랑 등 작고 아름다운 사연들을 들려주십시오.
이러한 사연들이 다른 사원 교도 여러분들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대구
개천사

청정수행, 소원성취 밀법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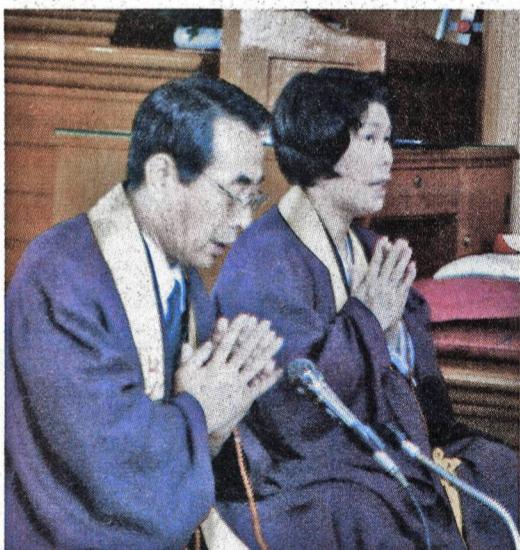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원력과 총지종의 법 맥, 원정 종조님의 교성과 시상을 전승하는 최상승의 밀법도량 개천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시시시칠 변함없이 진언법송으로 용맹정진하는 청정한 도량처럼 수행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청정하고 순수함을 유지하며,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룩하는 청정수행도량! 이곳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소원이 성취된다는 소원성취 밀법도량으로 유명한 개천사를 찾아기본다.

개천사의 연혁

개천사는 총기1년 대구시 중구 봉산동 230-12에 대지 100평을 매입하여 대인서원당으로 개설하여 전 종령이신 환당 대종사님이 교화하셨으며, 총기2년 원음서원당으로 개명하여 전 종령이신 수성 대종사와 삼정행 스승님이 교화하셨고, 총기5년 주변 대지를 매입하여 불단이설을 한 후 개천사로 개명하였다.

총기19년에는 대지 182평, 연건평 292평에 3층 건물로 신축하여 현공불사를 한 후 대구 경북지역 총지종 밀법도량으로 기틀을 다지고 밀법의 포교



를 활성화하여 이 지역에 밀법중흥의 기치를 이룩하였다. 총기29년에는 현 주교이신 지광정사님과 수심정전수님이 부임하여 교화하시고 계신다.

자신이 지은대로 과보를 받는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 인간의 삶은 고리는 일체개고를 역설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는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도를 이루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다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입니다.

인간은 각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는 한순간의 숨을 쉬지 못하면 소멸되어 버리는 단순한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영식은 소멸되지 않고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지는 것입니다.



▲ 개천사는 대구 중구 봉산동 230-12에 위치한 불교 사원으로, 주로 밀법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주변에는 대화악국, 대화양적전, 대화여국, 대화여국 등 다양한 문화유적들이 있다.

인 터 뷔

개천사 주교 지광 정사

△ 개천사는 총지종에서 사원 규모나 교도수가 큰 사원으로 교세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세가 활성화될 수 있는 특별한 원인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개천사가 다른 사원과 비교하여 교회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입적하신 수성 대종사님과 삼정행 스승님의 청정한 계율과 수행력으로 개천사 보살들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셨고, 총지종을 창종하신 원정 종조님의 유훈과 교성, 사상, 교법을 잘 받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원에서는 서원당 옆에 원정 종조님의 진영을 모셔놓고 조불(祖佛)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살님들이 스승님의 법문을 잘 받들고, 스스로 자비행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교회가 활성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지광 정사님은 어려운 사회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계행과 실천으로 수행적인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얻은 공덕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과찬의 말인 것 같습니다. 수행자로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덕목은 계행입니다. 계행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일뿐 더러 부처님과의 약속입니다. 계행을 지키지 않는다면 불제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한 순간의 안이한 생각으로 계행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을 것입니다.



지광 정사

△ 사람들은 각자 자라온 생활환경과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교회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회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과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화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울타리 속에 갇혀놓고 자기의 생각과 행동은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리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자기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공을 함에 있어 스승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불공하고 대중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는 오로지 용맹정진과 인욕, 하심으로 자기정화와 도량청정불공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물질만능주의 시대에서 물질적인 안락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려 하지만 물질보다 정신적인 안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도량이 청정해야 절에 찾아오는 사람

계행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며 부처님과의 맹서

수행자는 항상 밝은 웃음과 젊음을 유지하며 사는 것

집착과 아상을 버리고, 인욕과 하심의 자세가 필요

△ 계행을 지키면서 얻은 공덕이 있다면 정신적인 안정을 통해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함으로써 수행정진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 가장 큰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각 사원에서는 교도가 노령화되어가고 있고, 교도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앞으로 교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시대는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종조님께서도 시대변화에 따라 교회방편을 개발하여 교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지종에서 수행하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현재 총지종의 수행법이 힘들기 때문에 자녀들을 절에 데리고 와서 불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절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장시간 앉아서 불공하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불공시간의 융통성 및 절이라면 누구나 와서 수행할 수 있는 공감대형성, 주5일 근무와 맞벌이 부부를 겨냥한 교회방편개발, 대중과 함께한 문화공간 마련 등 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회방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사님을 만날 때마다 수행자로서 수수하고 청아한 모습 그대로 항상 밝은 웃음으로 젊음을 유지하며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원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행자는 항상 밝은 웃음과 젊음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수행철학은 항상 인욕과 하심으로 실천 수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에는 자성불이 있습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보다 잘 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대중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남에게 미루려고 하고, 자신만의 편안과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집착과 탐욕, 아상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착과 아상을 버리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은 남도 싫어한다는 이치를 깨닫고 항상 인욕과 하심의 자세로 생활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총지종 교도 및 개천사 교도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지종 장종 초기에는 교회가 활활 타오르는 불화산처럼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그 열기는 차츰 쇠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은 초발상을 상실해 가지고, 인욕과 하심의 감을 잊지 못하고, 내 몸안에 있는 법당과 부처님을 섬기지 않고 남의 법당과 부처님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계행과 인욕과 하심, 청정한 도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살님들은 우연이나 요청을 바라지 말고,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반드시 과보를 받는다는 인식을 버리지 말고 업장 소멸을 위해 용맹정진하시기 바랍니다.